

고려 개인발원사경(個人發願寫經)

The Study on the Personal Praying Sentence in Personal Praying Script of Koryo Dynasty

권 희 경(Hi-Kyung Kwon)*

목 차

- | | |
|------------------|-----------------|
| 1. 서론 | 3. 고려 후기 개인발원사경 |
| 2. 고려 전기 사경의 발원문 | 4. 결론 |

< 초 록 >

고려 개인발원사경에 나타난 발원문은 고려 불교사 정리를 위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사학, 서지학 미술사학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개인발원 사경에서는 발원자들이 자신들의 관직을 밝히고 있어,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난 관제와 비교함으로써 고려 관제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발원문에 나타난 내용에는 사경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 불교사상사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또한 발원문을 통해 시재자와 발원문을 쓴 사경의 발원주체인 고승대덕들의 원을 구명 할 수 있어, 고려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사경, 발원사경, 발원문, 관제사, 불교사상사

< ABSTRACT >

The personal praying sentence in personal praying scripts of Koryo Dynasty should be very important source for study of Koryo buddhism's history as well as historic, bibliographic and art historic. Especially it would be good source for study of official position in Koryo Dynasty because in the personal praying scripts the prayers expressed their own official position when compared to the official positions presented in Bekguanji(all officer's magazine) in Koryosa(history of Koryo Dynasty). As the characteristic of script is presented in the contents of personal praying sentence, it would be remarkable source for study on the history of buddhism's thought.

Through the personal praying sentence it is possible to make clear the hopes of donor and high monks who were the key members for writing praying script. Also study on the personal praying sentences in Koryo scripts would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profile of society of Koryo Dynasty.

Key words: Scripts, Praying Scripts, History Of Official Position, History of Buddhism's Thought

*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학과(hkkwon@cu.ac.kr)

1. 서론

고려 개인발원사경에 나타난 발원문은 고려 불교사 정리를 위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사학, 서지학 미술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개인발원 사경에서는 발원자들이 자신들의 관직을 밝히고 있어, 『고려사』 백관지에 나타난 관제와 비교함으로써 고려관제사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발원문에 나타난 내용에서 사경의 성격 나타나고 있어, 불교사상사 쪽에서도 주목 할만 한 자료이다.

어떤 인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각 사경을 발원 했는가를 발원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사회에서 발원자들이 위치와 그들의 사회적 역할까지 살필 수 있어, 고려사회사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2. 고려전기사경의 발원문

1) 日本 福岡市 東長寺 소장 『佛說彌勒成佛經』

현종 6년(1015), 권자본, 감지금자, 25.8cm×30.3cm,

〈弟子高麗國/靑州官內/懷仁縣/戶長陪戎校尉/李英位/奉爲 聖壽天長/福祚無窮/兵戈不起/於三邊/佛法長興/於萬世天下大平/法輪常轉/五穀豐登/人民常樂/謹成三

卷金字彌勒經/普勸受持/永充供養/時乙卯五月 日謹記〉

이 사경의 발원문 양식은 맨 앞에〈弟子〉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바로 發願者의 관직과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국 靑州官內의 懷仁縣의 호장이며, 陪戎校尉였던 李英位가 왕의 장수를 빌고, 나라에 무궁토록 兵戈¹⁾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불법이 오래도록 흥하고, 만세토록 천하가 태평하고, 法輪이 常轉하고, 五穀이 豐登하여, 인민이 항상 즐거워하기를 기원하여, 삼가 『金字彌勒經』 3권을 만들어, 넓게 受持하기를 권하며, 영원히 공양에 충실하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寫成年代를 〈時 乙卯五月 日〉이라고만 적고 있어, 정확한 제작 년대를 알 수 없으나, 고려 후기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첫째 〈聖壽天長〉으로 시작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몽고 침입 이후, 元이 고려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至元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은 元을 의식하여 발원문을 쓸 경우 〈皇帝萬〉, 혹은 〈皇帝萬歲〉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聖壽天長〉은 공민왕 이후 사성된 사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고려전기 사경 발원문양식은 공민왕대의 사경 발원문 양식과는 다르다. 日本 壹岐의 安國寺 소장의 重熙 15년, 고려의 정종 12년(1046년)에 제작된 高麗初彫大藏經 『大般若經』(총 591권)²⁾의 목서로 씌어져 있는 각권 尾書 중

1) 전쟁

2) 84년 夏李放學 中 筆者는 東國大學校의 對馬 및 壹岐의 第二次調査에 參與하여 對馬, 壹岐 調査를 하였는데 이미 千惠鳳教授에 의해 判明된 對馬嚴原町の 對馬歷史 資料館 소장의 『大般若經』과 壹岐의 安國寺 소장의 『大般若經』

에서 제33권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데³⁾ 여기에서도 발원자의 관등성명을 먼저 기록한 후, <聖壽天長>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청주관내의 회인현의 호장이었던 이영위의 陪戎校尉라는 武散階의 품계에서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 武散階는 성종 14년(998년)에 제정되었으며 『불설미륵성불경』의 발원자였던 이영위가 제수했던 陪戎校尉는 武散階의 총 29품계 중 從九品 上으로 끝에서 두 번째 品階⁴⁾이다. 고려 초 무산계는 老兵⁵⁾과 工匠이나 樂人⁶⁾ 혹은 여진이나 탐나의 왕족이나 추장⁷⁾들에게도 제수하였지만, 무신난에 의해 권력이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강력한 호족적 존재였던 鄉吏들에게도 수여한 예가 있다.⁸⁾

그러므로 武散階가 제정되었던 성종 14년 이후, 문종 이전의 乙卯年은 현종 6년(1015년)에 해당한다. 더구나 아직도 靑州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호장으로써 陪戎校尉라는 품계를 사용한 正祐寺 銅鐘記와 權適墓誌

의 사례⁹⁾ 역시 현종 때였고 이들 2점의 발원문보다 20년 후의 日本 壹岐 安國寺 소장의 초조대장경 발원문의 양식과도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이 사경발원문의 乙卯는 현종 6년의 乙卯일 수밖에 없다.

2) 호암미술관 소장 『大般若波羅密多經』제 175권
문종 18년(1064), 원자본, 감지금자, 세로 55.0cm.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金吾衛大將軍太相太子左藍門率府率/金融範/奉爲/君王萬壽/家國一平/及先落祖親/後亡考妣/成兄將弟/妻與孥焉/存者樂生/沒子成果/金銀字六百般若經也/時清寧年三月 日記>

이 발원문 역시 『佛說彌勒成佛經』과 같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먼저 밝힌 후, 발원문을 쓰고 있다. 『佛說彌勒成佛經』의 발원문에서는 바로 <弟子>라고 기록한데 비해, <菩薩戒弟子>라고 기록한 것은 발원자인 金融範이 보

이 같은 高麗初彫大藏經이란 것은 그때 판명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千教授의 論文發表에서 된 것으로 안다. 단지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版本의 끝에 어떻게 墨書로 된 尾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3) 菩薩戒弟子瞻部洲高麗國金海戶長札院使許珍壽/特爲 聖壽天長/邦家朝夕/隣兵永息/慈親九族/福海增深/次亡孝尊靈/法界衆生/成無上道¹⁾之願/謹成六百般若經/永充供養/重熙十五年丙戌四月日/春經 比丘 曇光/己巳十二月 二日 記/道林

4) 『高麗史』77권 百官志二의 「武散階」.

5) 『高麗史節』世家 제3권 穆宗 2年 冬1월 20일 및 『高麗史』世家제4권, 현종 4년 9월.

6) 『高麗史』世家 제9권 문종 7년 및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文總覽』上(76년 10월 10일 亞細亞文化社)의 p.279 「七長寺慧炤國師塔碑」의 미서(尾書) 참조.

7) 『高麗史』제9권 문종 37년 2월 辛未 및 『高麗史』제11권 숙종 5년 2월 을사.

8) ◎ 『삼국유사』제4권 寶壤梨木 條에 「正豐 六年 辛巳(大金年號本朝毅宗卽位十六年也) 九月, 郡中古籍碑補記, 清道郡前戶長禦侮副尉李則禎戶在古人消息及諺傳記載 致仕上戶長同正尹應」.

◎ 『고려사』제5권 세가 덕종 조에 「德宗元年二月壬寅朔, 以通州振威副尉戶長金臣, 別將守堅, 當庚戌年, 丹兵之來, 堅壁固守, 又禽其大夫馬首, 加金臣郎將, 守堅贈郎將」.

9) ◎ 현종 10년에 주조된 正祐寺鐘記¹⁾에 「菩薩戒弟子高麗國興麗府棟梁僧彥修名保戶長陪戎校尉金○○」라는 명문과
◎ 의종 2년에 건립된 안동의 權適墓誌의 「公安東府人也 曾王父戶長陪戎校尉諱均漢」.

살계를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南瞻部洲高麗國〉이라는 기록은 세상의 한 가운데 須彌山이 있고, 南瞻部洲는 須彌 4洲 하나로 수미산 남쪽에 있는 州이므로 고려가 南瞻部洲와 같은 佛國土라는 뜻이다.

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君王의 萬壽를 받들어 위하고, 家國이 하나 같이 평안하기를 빌며, 먼저 세상을 떠난 조부모와 그 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 빌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처와 더불어 자식이 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생을 즐기고, 죽은 자들이 佛果를 이루도록 금·은자의 6백반야경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사경의 제작시기가 〈時淸寧年 三月〉로 적혀 있어, 遼의 년호가 淸寧으로 바뀌던 해로 볼 수 있다.¹⁰⁾ 이 해에 고려의 태자책립에 있었고, 〈金良贄를 파견하여 거란에 고했다〉¹¹⁾는 기록도 있어, 〈淸寧年〉은 문종 9년(1055)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金融範이 발원문에서 밝힌 그의 관직은 金吾衛의 大將軍으로 太相이었고, 太子左監門率府의 率이었다. 그러나 『高麗史』에 의하면 〈태조가 泰封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大匡, 正匡, 大丞, 大相의 號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¹²⁾, 성종 14년에는 文武官階가 분리되면서 문관은 大匡을 開儀府儀同三司라 하고, 正匡을 特進이라 했으며, 大丞을 興祿大夫, 大

相을 金紫興祿大夫¹³⁾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여, 大相을 太相으로 기록한 것은 이 시기 국초의 습관대로 태봉의 제도가 통용되고 있었으나 誤記된 것이든지 아니면 성종 이후 다시 관제의 改定이 있어 太相이 되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太子左監門率府率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이 사경이 발원 될 당시의 고려의 태자는 延德宮妃의 장자 「然」로서 문종 7년에 〈勳〉으로 개명하여, 문종 8년에 7세의 나이로 태자로 책봉된 후일의 純宗이다.¹⁴⁾ 『高麗史』에 의하면 〈勳〉을 위해 문종 8년 12월 동궁의 시위공자와 시위급사가 정해졌고, 문종 22년에는 다시 東宮官의 개정이 있어, 左右監門率府가 생겨 率과 副率을 두었으며, 侍衛上大將軍도 두게 되었다¹⁵⁾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문종 22년에야 太子左右監門率府라는 관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원문에 의하면 金吾衛의 대장군이었던 金融範은 문종 8년에 太子左監門率府의 率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高麗史』百官志의 東宮官 기록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발원문에서는 太子左監門率府의 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것 역시 誤字인지 아니면 당시 太子宮의 문이 남색 문이어서 監자 대신 藍자를 썼는지 의문을 가지지 아니 할 수 없다.¹⁶⁾

太子左監門率府의 率자 뒤로 네 글자가 박

10) 대개 年號가 쓰여 졌으면서도 몇 年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은 年號가 바뀌는 해이다.

11) 『高麗史』世家 제7권 문종 8년 3월 및 11년.

12) 『高麗史』選舉志 제29권 향직 및 『高麗史』百官志 제31권 文散階.

13) 『高麗史』百官志 제31권. 文散階 참조.

14) 『高麗史』世家 제7권 文宗條.

15) 『高麗史』列傳 百官志 東宮官 條.

16) 〈顯宗 十三年 立太子, 置師保 及官屬(中略) 文宗八年 命有司 選三品官之孫 五品以上官之子 二十人 爲東宮侍衛公子, 五品官之孫 七品以上官之子 十人 爲侍衛侍給事, 永爲定制, 二十二年 置大師 大傅, 大保各一人 從一品 少師.

락이 심해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3. 고려 후기 개인발원사경

- 1) 日本 宝積寺 소장 『妙法蓮華經』 제1권과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충렬왕 20년(1294), 절첩본, 감지은자,
 30.4cm×11.1cm.

〈伏爲/皇帝萬年/國王千秋/佛日增明/法輪常轉/先亡父母/離苦得樂/兼及己身/一門眷屬/各脫災殃/同增福壽/世生生/常得吉祥/見佛聞法/悟無生忍/度諸有情¹⁷⁾/方證菩提之願/情人家中/敬寫成銀字/法華經一部/金光明經四卷/阿彌陀經梵行品/各手大悲心陀羅尼等經/用資福利耳謹誌/至元三十一年/甲午十二月日/功德主中正大夫/宗薄令致仕安節/安東郡夫人李氏/同願/昌寧郡夫人張氏〉

京都 寶積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전면과 배면 양쪽으로 사경되어 있는데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는 『妙法蓮華經』 제 7권 배면에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가 寫書되어 있다.

발원문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끝에 기록되어 있다. 至元 31년(1294) 충렬왕 20년 작품으로 발원자의 관직과 성명이 맨 끝에 쓰여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먼저 〈황제만년과 국왕천추

의 수를 엮드려 빌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불일이 더욱 빛나고, 법륜이 상전하기를 빈 후,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가 고생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곁하여 자신의 일문권속이 각기 재앙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세세 생생토록 수와 복을 더하고, 항상 길상을 얻고, 불을 만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깨달아, 여러 중생을 구제하여, 바로 보리자의 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집에 사람(사경승)을 청하여, 『法華經』 1부와 『金光明經』 4권 『阿彌陀經』 『梵行品』 『各手大悲心陀羅尼』 등의 경전을 정중하게 銀字로 寫成하였으니, 지금까지 사용된 재물에 복리가 있을 것〉을 빌고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대공덕주인 安節은 中正大夫로서 宗簿司의 수의 관직을 지냈으나, 이 사경을 사성했을 당시는 이미 관직을 은퇴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中正大夫를 『高麗史』 百官志에서 살펴보면 문종에 의해 29품의 文散階가 정비될 때도 종4품이 中大夫였고, 충렬왕 원년에 문산계를 새로 제정 할 때나, 충렬왕 24년 충선왕에 의해 문산계를 정비할 때도 종4품의 中大夫 있었을 뿐이다. 충렬왕 34년 또 한 차례 개제 때 비로소 종3품이 中正大夫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 발원문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宗簿寺〉를 살펴보면 족속 및 보첩을 장악하던¹⁸⁾ 관서로 『高麗史』 百官志의 기록에 의하면 〈목종 때 시작되어, 충선왕 2년에 다시 宗簿寺가 되었고, 이 宗簿寺 수이 종3품, 부령이

少傅, 少保各一人, 從二品, 賓客四人, 正三品, 左右庶子, 各一人, 正四品, 左右諭德各一人, 正四品, 侍講學士, 侍讀學士各一人, 從四品等(中略) 左右司禦率府, 率 副率, 左右監門率府, 率 副率, 左右清道率府, 率 副率(中略), 又有侍衛上大將軍(下略)〉

17) 有情은 바로 중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

18) 上同.

종4품이었다)¹⁹⁾는 기록이 있다. 충렬왕 20년 이 작품이 제작 될 당시에도 宗薄寺에는 승과 副승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렬왕 20년 이전에도 宗薄寺에는 승이 있었다는 것만은 이 발원문으로 확인 할 수 있다.²⁰⁾

安節은 죽속 및 보첩을 장악하던 <宗薄寺>의 <승>으로 있었던 만큼 제국대장공주의 측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皇帝萬年>을 <國王千秋>보다 평출시킴은 물론 <佛>보다 평출시킨 점에 있어서나, 그의 집에서 사람을 청해 온자 『법화경』 1부와 여러 종류의 경전을 사성했다는 점에서 권력과 부를 갖추었던 친원계의 인사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安節의 옆에 기록된 안동군부인 이씨는 안 절의 처일 것으로 생각된다. 창녕군부인 장씨는 따로 행을 바꾸어 同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安節이나 이씨의 친척으로 짐작된다.

특기 해 둘 사항은 <사람을 청해 오다>를 <倩人>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계속적으로 <倩人>이라고 기록되다가 조선 초에 들면서 <淸人>으로 바뀌고 있다.

2)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妙法蓮華經』 제5권

충선왕 3年(1311), 권자본, 감지은자, 31.0cm×380.0cm,

<人臣之祝/工固現世/況臣崔瑞偏受/工恩者甚矣/祝之誠蓋倍/於他人者哉/故當主

上之厄年辛亥秋/特倩書手/寫成金字蓮經七軸/伏願殿下無疾病/歟長壽貴也/享國千秋波及/已身嘉耦/現增福壽/當生安養/先亡父母/法界四生/同霑樂利耳>

이 발원문은 『妙法蓮華經』 제5권의 권말에 쓰인 발원문으로 일반적 발원문과는 다르다.

<사람의 신하가 축원 하건데 일을 공고히 하는 현세의 신하 崔瑞가 (시주를) 두루 받았으니, 일에 은혜를 준 자가 심히 많으니, 축복의 정성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가 되게 하고자한다. 고로 현 주상의 액년인 신해 가을에 특히 書者의 손을 청해서 금자의 『법화경』 7축을 사성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가 질병 없이 장수하고, 귀하게 되기를 엿드려 빌고 있음이니라. 나라는 천추에 이르고, 왕과 아름다운 배우자가 현세의 복과 수를 더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에게 편안하게 제사 할 수 있게 하고,²¹⁾ 법계의 4생들에게도 기쁨과 이로움이 두루 미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다.

이 발원문으로 보아, 崔瑞가 주상을 위해 발원한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皇帝萬年>을 평출하는 양식은 보이지 않는다.

崔瑞를 『高麗史』에서 살펴보면 충렬왕 21년(1295) <윤4월 계축일에 秘書省 事 崔瑞로 제주목사를 삼았다>는 기록²²⁾이 있고, 충숙왕 즉위년(1314) 12월 을묘일 조에는 <崔瑞로 하여금 宣誠守節光輔功臣 鐵原君을 삼았다>는 기록²³⁾이 있어, 그는 秘書省의 事로 일하다가

19) 『高麗史』77권 百官志文散階.

20) 『高麗史』77권 百官志 宗薄寺.

21) 제사지념.

22) 『高麗史』世家 제31권 忠烈王 21년(1295) <癸丑, 以判秘書省事崔瑞 爲濟州牧使> 및 『高麗史』地理志 제11권 충렬왕 21년조.

23) 『高麗史』世家 제34권 忠肅王 즉위년(1314) <乙卯, 以崔瑞, 爲宣誠守節光輔功臣鐵原君>

은 공민왕대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이 사경변상화의 여래 앞에 놓인 불단의 양식이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의 사경변상화 양식과 같고, 충선왕과淑妃의 金氏의 발원이었던 日本 佐賀市の 鏡神社 소장으로 현재는 佐賀縣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楊柳觀音畫』와 비교할 만하다. 보현보살의 아래쪽과 여래좌상의 아래부분 등의 지운문도 渦形으로 충렬왕대의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공민왕대의 변상화로 보기 힘들다. 至大年間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사경의 변상화가 그려진 배면에는 『文卿畫』라고 쓰여 있어, 변상을 그린 화가가 文卿임을 알 수 있다. 변상화를 그린 화가가 밝혀진 것은 이사경이 처음이다.

4) 日本 金澤 大乘寺(第1卷)·日本 松江 天倫寺 소장 『妙法蓮華經』7권본 1부
 충숙왕 2년(1315), 절첩본, 감지은자,
 30.1cm×10.5cm.

〈大功德主/資善大夫/典瑞院使/兼宮正司宮正神光君申 當住 夫蓮經之旨/甚深微妙/於諸經中/最尊最勝/藥王菩薩本事品/云若人/得聞此法華經/若自書/若使人書/所得功德/以 佛智慧/籌量多少/不得 其邊/是故弟子/於此法門/深植信根/普勸緣/敬以金字/倩人寫成一部/用茲功德/奉祝/皇帝萬年/瀋王殿下福壽無疆/當今主上/寶位天長/諸王宗室/共保康寧/文虎百僚/忠貞奉國/干戈不起/國泰民安/次願同隨喜施主等/現增福壽/於當來世/法華會上/同聞妙

法/共成妙果/普及法界/舍靈速離苦海/俱成正覺耳/延祐二年 乙卯 八月 日道環 誌/同願〉

日本 金澤 大乘寺 및 松江 天倫寺 所藏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로 제2권이 결본이다. 大乘寺에 제1권이, 天倫寺에 제3권부터 제7권까지 보관되어 있는데, 大乘寺의 제1권 발원문에는 〈大功德主資善大夫典瑞院使宮正司宮正 神光君申 當住〉라고만 적혀 있다. 天倫寺 소장의 각 권말에도 大乘寺 소장 제1권의 尾書와 같은 기록이 보이며, 상기 발원문은 제7권 발원문의 기록이다.

제7권의 발원문으로 이 사경은 延祐 2년인 충숙왕 2년(1315)에 사성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며, 대공덕주는 원의 資善大夫로서 典瑞院의 院使이며, 또한 宮正司의 宮正인 神光君〈申當住〉가 발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典瑞院의 院使는 元 황제나 皇室이 고려에 대해 실력행사를 할 때, 사절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高麗史』 세가 忠惠王 즉위 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충숙왕이 전위할 것을 주청함에 17년 2月 壬午에 帝가 典瑞院의 院使 阿魯委頭曼台와 客省太史 九住에 명하여 왕을 책망하게 하고 客省副使 七十堅을 보내와 國印을 거두어 갔다는 기록으로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²⁴⁾ 이 기록으로 典瑞院의 院使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읽을 수 있다.

資善大夫는 元의 文散官 42散官 중 정2품에 해당하므로 대단히 높은 벼슬이며,²⁵⁾ 『宮正司』는 『新元史』 百官志에 의하면 역시 元 세조 원년에 『府正司』로 설치되어 元 세조 31년

24) 『元史』百官志二一 典瑞院條 참조.
 25) 『元史』百官志十三 文散官 참조.

에 <宮正司>로 바뀌었다가 대덕 11년에 다시 <府正司>가 되었고 <宮正>은 정3품이었다.

<申當住>라는 인물은 『東文選』에 실린 李穀의 『大都天台法王寺記』에 의하면 그가 李穀에게 『重興龍泉寺碑』撰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至正 원년(1341)에 『重修華嚴堂經板本記』²⁶⁾에서도 고려승려 慧月이 <資德大夫 高龍卜과 匠作院²⁷⁾ 院使 申黨住에게 石戶經本の 수리에 원조를 청했다²⁸⁾는 기록이 보인다. 『高麗史』에서 高龍普로 지칭되는 인물이 바로 高龍卜이듯이 申當住와 申黨住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史』 列傳 宦者 條에 의하면 <제국대장공주가 元 세조에게 환관을 바친 후, 수십 년이 되지 않아 환관들의 수가 불어나, 大司徒 혹은 平章政事가 된 자도 있으며, 이후 환관들은 모두 院使 司鄉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高龍卜과 함께 申當住도 宦官이었음을 알 수 있다. 申當住는 延祐 2년(1315)에는 元에서 資善大夫로서 典瑞院 院使 겸 宮正司 宮正이 되어, 이 사경을 발원하고, 至正 원년인 충혜왕 복위 2년(1341)에는 혜월의 화엄당의 <석호경본>의 수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진 元의 황실의 고려 宦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은 먼저 이 경전을 쓰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 <무릇 『妙法蓮華經』의 뜻은 심히 미묘하고 깊어, 여러 경전 중에 최존·최승이니, 『藥王菩薩本事品』에서 말하기를 만

약 어떤 사람이 이 『法華經』을 듣게 되거나, 만약에 스스로 필사하거나, 만약에 남에게 시켜서 필사하면 공덕을 얻게 되는 바가 되니, 佛의 지혜로서, (그) 량의 다소를 헤아려도 그 가장자리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고로 불제자는 이 (法華經) 범문으로써 신앙의 근본을 깊이 심고, 넓게 시주를 권하여, 정중하게 금자로서 사람을(사경승 혹은 사경사를) 청하여, 『法華經』 1부를 사성하였으니, 이 공덕을 사용하여, 황제만년을 봉축하며, 瀋王殿下의 복과 수의 무강함과 현재의 주상이 보위천장하고, 종실의 여러 왕들이 공히 강령하기를 빌며, 문무백료가 충성과 정절로 나라를 받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國泰民安하기를 빌고, 그 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원하노니 수희시주한자들이 현세에서 복과 수를 더하고, 내세에 이르러서 法華會의 상석에서 다 같이 묘법을 듣고, 공히 묘과를 이루어, 법계에 넓게 미치게 하고, 중생들이 속히 고힬에서 벗어나, 두루 正覺을 이룰 수 있기를 빌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발원문을 쓴 사람은 道環이다.

<皇帝萬年>을 평출시키고 있으며, <皇帝萬年>에 이어 <瀋王殿下>로 기록되고 있다. <瀋王殿下>는 충숙왕대에 瀋王이었던 焜이다.²⁹⁾ 瀋王 焜는 충렬왕의 貞信府主의 소생 江陽公 滋의 아들로 충선왕이 사랑하기를 자기자식과 같이하여, 충선왕이 元에 있음에 位를 충숙왕에게 물리면서 焜를 세자로 삼았다.

『高麗史』에 의하면 瀋王 焜가 薊國大長公

26) 北京圖書館金石組·中國佛教圖書文物石經組 編 『房山石經題記彙編』新華書店北京發行所, p.33

27) 匠作院은 將作院임.

28) <…心篤行□政資德大夫龍卜高工匠作院院使□□大夫黨主申公 및 時至正改元夏五月比丘慧月立石大功德主高龍卜院使 申黨住院使>

29) 『高麗史』 열전 제4권 종실1 .

主의 형과 결혼하여 英宗皇帝의 사랑을 얻고 있는 점을 믿고, 충숙왕 8년(1320) 7월에는 왕의 還國을 저지 하였다는 기록이나, 충숙왕 9년 상왕의 復位還國을 청하는 글을 瀋王의 무리들이 방해했다는 등의 기록, 英宗의 제위기간 중에 권한공 등이 髡를 왕으로 세울 모의를 위해 백관들에게 서명을 시켰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瀋王 髡가 英宗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당주가 瀋王 髡의 편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이 바로 이 사경의 발원문이다. 뿐만 아니라 瀋王 髡를 今主上 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신당주가 元의 英宗이 태자로 있을 무렵부터 가까웠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발원문으로 瀋王 髡가 英宗 제위기간 중에 얼마나 득세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 5)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16권·제40권
충숙왕 11년(1324), 절첩본, 감지은자,
32.5cm×12.3cm.

[제16권 발원문] <弟子比丘 仁誦/以此敬書/大經功德/三處廻向/普皆圓滿/次以壽君/次以福國/三世師親/同得解脫/或施金銀/或施餘財/執勞運力/見聞隨喜/凡有緣者³⁰⁾/共增福慧當成佛果/惟願弟子/始從今日/終至菩提/生生世世在在處處/或以香墨/或以金銀/至刺血書寫/此經受持讀誦/廣能利益/一切衆生/如說修行/同人圓通/三昧性海/卽見毘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盡摩訶

般若波羅密/時泰定元年甲子十二月 日/寓金生謹誌/弟子道人而幻因請敬寫)

이들 2권의 사경 이외에도 표지화나 서체로 보아 같은 한질로 사성된 『大方廣佛華嚴經』이 동국대학교박물관에는 2권이 더 있으니 제 17권·제41권이다. 그러나 발원문이 있는 것은 이 2권뿐이다.

먼저 제16권의 발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弟子比丘 仁誦이 삼가 이 경전을 사경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泰定 원년(1324) 12월 일에 사경하는 장소에 머무러던 金生이 발원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에 道人과 幻因에게 청하여 정중하게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 김생이 지은 발원문을 道人과 幻因이 썼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발원문의 내용은 <큰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공덕이 三處³¹⁾에 廻向³²⁾하여 넓게 모두 원만하고, 다음으로 군주에게는 수명을 나라에는 복을 빌고, 三世師親에게는 다 같이 해탈이 얻어지기를 빌며, 후자는 金·銀을 시주하였고, 후자는 여분의 재물을 시주하였으며, 노동을 맡은 자, 보고 들은 것에 隨喜한 모든 인연 자들에게 共히 복과 지혜를 더하고, 마땅히 佛果를 이루기를 빌며, 願을 생각하는 제자가 처음부터 금일의 마지막 보리에 이르도록 生生 세세 재재 처처에서 혹은 향묵으로써 혹은 金·은으로써 자혈로 사경을 서사하니, 이 경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워서, 능히 그 이익 됨을 넓히니, 일체중생에게 수행을 설한바

30) 교화된 자.

31) 비구가 머무를 세 곳.

32) 자기가 닦은 善根功德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기의 불과에 돌리는 것.

그와 같이, 사람들이 다 같이 원만하게 통달하고, 삼매(三昧)의 성해(性海³³)에서 즉시 비로자나불을 만나서, 圓滿果海가 증생계에 다 하고, 나의 원이 이에 摩訶般若波羅密에 다하도록)을 빌고 있다.

이 경전의 발원문 내용에서는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사경한다>는 내용을 실천하고자 이 사경을 사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주와 국가에 대해 빌고 있으나, 불교 교리에 충실한 이념을 이 발원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40권 발원문] <弟子比丘 仁誦 以次敬書/大經功德/三處廻向/普皆圓滿/次以壽君/次以福國/三世師親/同得解脫/施銀檀那/大師演洪永暉首/或施金泥/或施布物/同辨善者/執勞運力/見聞隨喜/共增福慧/當成佛果/惟願仁誦/始從今日/終至菩提/不做金言求名求利/但爲教化/一切衆生/生生世世/在在處處/或以香墨/或以金銀乃刺血/書寫全部/讀己能誦/誦己能持/持○經心/即見極樂阿彌陀佛/受授記已/還於六趣/遊戲自在/如說修行/普令衆生/未聞者/聞未信者/信未解者/解行同普賢/智同文殊/同證毘盧/圓滿果海/衆生界盡/我願乃盡摩訶般若波羅密/時泰定元年甲子八月日/寓金生 謹誌/弟子道人而幻因請敬寫 >

이에 비해 제40권은 거의 제16권 거의 같으나 부분적으로 약간씩 틀린다. <큰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공덕이 三處에廻向하여, 두루 모두가 원만하고, 그 다음으로 군주에게는

수명을, 나라에는 복이 있기를 빌고, 三世師親이 같이 해탈을 얻기를 빌고 있는 것)까지는 제16권과 같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용은 좀더 구체적이 되고 있다. <銀을 시주한 시주자인 대사 演洪·永暉를 으뜸으로 하여, 혹은 금니를 베풀거나, 혹은 직물을 베풀거나, 그와 같은 선을 행한 사람을 변호 한자, 힘으로 노동을 한 자, 그 듣고 본 것을 隨喜한 자에게 공히 福과 智慧를 더하고, 마땅히 佛果를 이루기를 빌며, 願을 생각하는 인형이 처음부터 금일의 마지막 菩提에 이르도록, 金言³⁴)을 모방하여 명성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만 교화를 위하여 일체중생에게 생생 세세 재재 처처에서 혹은 향묵으로 혹은 금·은으로 내지는 刺血로 전부를 서사하였으니, 스스로 읽어 능히 외우고, 스스로 외어 능히 지니고, 스스로 지녀 마음에 거처게 함으로서, 즉시 이미 타불의 극락을 보고, 스스로 수기를 받아, 육취³⁵)에서 돌아 와, 관자재보살의 설법한 것과 같이 유희하며, 수행을 설한 것과 같이 중생에게 보령(普令)하여, 아직 듣지 못한 자, 들었으나 아직 믿지 못하는 자, 믿어도 아직 깨치지 못한 자, 깨쳐 보현과 같이 행하고, 문수와 같이 지혜로워서, 그같이 비로자나불을 증명하고, 불과의 바다에 원만하고, 증생계에서 내 원이 다 하고, 이에 摩訶般若波羅密이 다하도록)이라고 빌고 있다.

이들 사경은 발원문에 의하면 <제자 비구 인형이 이 경을 정중하게 사경 했다>고 발원문의 맨 첫줄에 쓰여 있어, 인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33) 진여의 이성을 바다에 비유한 말.

34) 불의 금구(金口)로부터 나온 말.

35) 육도.

혼자서 전부 사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정 원년(1324)에 8월 일에 金生이 머물면서 발원문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40권의 발원문에서 <金言(석가의 말씀)으로 명리를 구하지 않은 것처럼 인형 역시 보리심으로 일체중생의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내용에서 인형은 역시 사경승으로 제16권과 제40권의 사경을 사서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泰定 원년 甲子年인 충숙왕 11년에 두 권의 사경이 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은 12월에 사성되었는데, 『대방광불화엄경』 제40권은 8월에 사성된 것으로 보아, 여러 권을 사경 할 때 반드시 순서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주자들의 청에 의해 전후 순서가 뒤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대방광불화엄경』 제40권의 경우, 발원문에 나타난 것처럼 寫成日이 8월인데 裏書에 『周經卷第四十 十二卜 甲子六月初九日書』라고 쓰여 있어, 제12쪽을 쓸 때가 6월 9일이었고 서사한 사경에 발원문을 쓴 때가 8월이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두 『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과 제40권 사경은 모두가 80화엄 중, 제16권과 제40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6권과 제40권의 발원문을 쓴 金生이라는 인물은 감지은니의 80화엄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집이 아닌 사경 제작의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寓라는 글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사경은 어느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깨우침을 위해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 내용 속에서 刺血 경전

을 서사했다는 표현으로 얼마나 사경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 하겠다.

6) 日本 羽賀寺 소장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

충숙왕 12년(1324), 절첩본, 감지은자, 29.1cm×11.1cm.

<特爲/己身現增福壽/當生淨界之願/倩人敬寫蓮經七卷爾/泰定二年六月日誌/護軍致死崔有倫立願>

泰定 2년(1325)에 충숙왕 12년에 上護軍을 은퇴한 崔有倫이 발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발원문의 내용으로 봐서 <자신의 몸에 현세의 복과 수를 더하고, 다음 생에 정토계의 태어나려는 원을 위해 사람(사경승)을 불러다가 『묘법연화경』 7권본을 사성했다>고 적고 있어, 철저히 개인적인 복락을 빌어 제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사경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가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崔有倫은 발원문에서 <皇帝萬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원계 인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國王千秋라든가 기타 국왕의 수명을 비는 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현세복과 수명을 빌기 위해 사람을 청해서 『묘법연화경』 7권본 1부를 사경했다고 발원문은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줄에는 상호군으로 은퇴한 崔有倫이 願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호군은 上將軍으로,³⁶⁾ 정종 11년에는 各領에 護軍 1명씩을 두게 하였으며³⁷⁾ 또한 국왕의 호위를 맡는 직위로 左大護軍 右上護軍

이 있었다.³⁸⁾ 현직이 아닌 문관과 무관에게 음관(蔭官)으로도 내려졌는데, 그때는 품계가 정 3품에 해당하였다.³⁹⁾ 상호군이나 대호군은 元으로 보내는 遣使로서도 큰 역할을 한 듯 하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최유운이란 인물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7) 해인사성보박물관 소장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

충숙왕 13년(1326), 절첩본, 감지금지,
8.3cm×6.4cm.

〈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官僚/高近祿位/國泰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者/泰定三年八月日/受持弟子覺慶/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大師/指空〉

이 사경의 발원문으로 태정 3년인 충숙왕 3년(1316) 8월에 제작된 사경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해인사의 大寂光殿에 안치되어 있던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로서 점과 그 의류 중에는 모시로 된 원대양식의 의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泰定 3년(1326)이라는 년대를 확실히 알려주는 중요한 사경이다.

西天大師 指空이라는 범명과 관련된 유물은 현재 우리나라에 3점이 있는데, 바로 해인사 소장의 이 사경 『文殊最上乘無生戒法』과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 이어 쓰인 호림박물관 소장의 『文殊最上乘無生戒法』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懶翁和尚受戒圖』라고 명

명되고 있는 계첩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경은 지공이 언제 고려에 왔는가를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먼저 발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국왕전하의 복과 수명이 無疆 하고, 문무의 관료들의 祿位가 높고 올라가고, 나라가 태평하며, 백성이 안전하고, 佛日 나날이 빛나고, 法輪이 常轉할 것〉을 빌고 있으며, 이어서 〈如來의 遺教弟子 西天大師 指空의 一乘戒法을 傳受하고자 이 경을 받아 지닌 제자 覺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발원문에 의하면 『文殊最上乘無生戒法』 나타난 覺慶에 의해 발원제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覺慶이라는 승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하여 指空과 인연이 닿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恭愍王 21년(1372) 李穡이 撰한 〈西天提納簿陀尊者浮圖銘竝書〉에 의하면 〈指空은 迦葉尊者로부터 108대로 전해진 提納簿陀尊者禪賢〉으로 인도의 승려이며, 태정 년간에 중국에 이른 것으로 기록⁴⁰⁾되고 있다. 그러나 泰定の 재위기간은 4년(1324-1327)이고, 그 중 어느 해에 중국에 도착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후 〈天曆 초(1328) 금강산의 法起道場을 예배하고 곧 燕都로 돌아갔다〉고 기록⁴¹⁾되어 있으며, 『高麗史』에서는 충숙왕 15년(1328)에 7월 〈庚寅 胡僧 指空이 延福亭에서 설법과 수계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閔漬의 『禪要錄』 서문에서는 그가 泰定 3년에 3월에 지공이 고

36) 高麗後代 將軍을 護軍이라 칭했다.

37) 『高麗史』兵志五軍條, 『靖宗十一年, 五月, 揭榜云, 國家之制, 近代使及諸衛每領設護軍一(下略)』.

38) 『高麗史』百官志 西辨條 참조.

39) 『高麗史』百官志 西辨條 참조.

40) 亞細亞文化社 『朝鮮金石文總覽』下, 朝鮮總督府編, p.1284.

41) 앞의 책, 『朝鮮金石文總覽』下, p.1284.

려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²⁾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 정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이 해인사정보박물관 소장 『문수최상승무생계법』이다.

〈西天提納簿陀尊者浮圖銘竝〉의 기록은 지공이 고려의 금강산 法起道場의 예를 마친 후, 天曆 초에 연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高麗史』의 기록은 〈충숙왕 15년의 7월에 延福亭에서 설법하고 수계했다〉는 기록이다. 충숙왕 15년 7월은 아직 元의 년호가 致化 원년이며, 9월부터는 天曆이 되므로 지공은 7월과 8월에 고려에 머물러 있다가 天曆 초인 9월 이후에 연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閔漬의 『禪要錄』에서는 〈指空이 泰定 3년 3월에 王京의 城 서쪽에 있는 甘露寺에서 도착하였고, 城中의 士女들은 釋尊이 부활 하여,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곳에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禪要錄』의 기록이야말로 『文殊最上乘無生戒法』 사경과 더불어 지공의 행적과 고려에 온 년대를 가장 정확히 고증 할 수 있는 기록이다. 바로 이 사경이 泰定 3년 8월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指空이 아직 금강산에 도착하기 이전, 王京에 도착하여 甘露寺에 있던 3월 이후이다. 이때 覺慶이 指空을 만나, 指空이 지니고 있던 『문수사리 무생계법』을 사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西天提納簿陀尊者浮圖銘竝書〉를 살펴보면 指空에게는 그가 인도로부터 가지고 와서 휴대하고 다닌 『文殊舍利無生戒法』

2권이 있었는데, 이 서문은 參政 偉大朴이 썼고, 또한 아주 반듯한 서체로 쓰인 『圓覺經』사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발문을 歐陽承旨가 썼다고 기록⁴³⁾하고 있어, 이 사경이 지공이 가지고 있던 『문수사리 무생계법』 2권 중에 한권과 연결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⁴⁴⁾

指空이 泰定 3년에 고려에 와서, 天曆 초에 연경으로 돌아 갈 때까지 수계와 설법이 고려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가하는 것과 또 얼마나 철저하게 육식을 금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에 상세히 실려 있다. 충숙왕 15년에 7월 庚寅에 胡僧 指空이 연복정에서 說戒하니, 士女들이 달려가 들었으며, 鷄林府 司錄 李光順은 무생계를 받은 후, 임지에 가서 주민으로 하여금 성황을 제기하는 데에도 육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 축돈을 금하기를 심히 엄하게 하여 주민들이 하루 동안에 돼지를 다 죽여 버렸다〉는 기록⁴⁵⁾이 있어, 지공의 인기와 그의 계율에 대한 엄격성과 그에게서 수계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에게 사로 잡혀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高麗史』를 편찬하던 조선 초의 분위기로 봐서 이와 같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기재되었다는 것에 오히려 경이를 느낄 정도다.

指空은 至正 3년인 공민왕 12년(1342) 11월 20일에 貴化方丈에서 입적했다.⁴⁶⁾ 그 후 〈무신년(1368)에 홍건적의 난으로 指空의 유체는 화장되었고, 達玄 淸慧 法明內正 張祿

42)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潮閣, 1997, p.44.

43) 앞의 책, 『朝鮮金石文總覽』下, p.1286.

44) 앞의 책 『朝鮮金石文總覽』下, p.1288.

45) 세가 제35권 충숙왕 15년(1328) 7월 조.

46) 앞의 책, 『朝鮮金石文總覽』下, p.1287.

이 유골을 4분지 1로 나누어 각기 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 무리 중에 達玄이 다비한 유골을 들고, 바다를 건너왔고, 司徒 達叡를 淸慧가 따라오니, 이를 갖추어 얻게 되었다고 했다.>고 기록⁴⁷⁾하고 있으며, <壬子年(1372) 9월 16일에 왕명으로서 양주 회암사에 부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회암사에 부도를 세우기 전, 指空의 유골은 王輪寺에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高麗史』 공민왕 19년 정월 甲寅日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왕이) 왕륜사에 행차하여, 佛齒와 胡僧 指空의 두골을 관람하고 친히 머리에 이고, 드디어 禁中에 맞아 들였다.>⁴⁸⁾고 기록하고 있어, 회암사의 指空의 부도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의 유골은 왕륜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은 지공이 고려를 방문했을 당시 覺慶이 직접 指空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경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공에게 계를 받으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수계한 최상승계란 『文殊最上乘無生戒』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이라고 할 수 있다.

8) 호암미술관 소장 『妙法蓮華經』제7권본 1부

충숙왕 17년(1330.) 절첩본, 감지은자, 28.2cm×10.2cm, 표지 감지금·은니.

<鴻山郡戶長/李臣起/特爲/嚴侍義方壽/倒三松/先亡聖/善足躡九蓮/普及自他/現

在未來/獲福無邊之願/寫成銀字蓮經七軸/廣施無窮者/天曆三年庚午/四月 日 臣起 誌/同願比丘 正因>

발원문에 의해 天曆 3년 충숙왕 17년(1330)에 홍산군 호장이던 李臣起에 의해 발원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원문 역시 李臣起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려 正因이 이에 함께 참여 했다. 그러나 天曆 3년이라는 기록에서 홍산군에서는 년호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것이 된다. 天曆은 2년뿐이었다.

한 가지 특기 할 만 한 사실은 사경발원문이 이 시대에 제작된 다른 작품들과는 발원문양식이 다르다. 자신의 관등성명을 먼저 기록하던 고려초기의 사경발원문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李臣起가 지방의 호장 출신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鴻山郡에 관해서는 『高麗史』地理志에 鴻山은 청주목(淸州牧)에 속해 있었고, 『高麗史』世家 제133권 申禡조에 의하면 <부여, 정산, 홍산에 왜가 侵寇했다는 내용이 있고, 『고려사』열전 제26권 최영 조에 <왜구를 평정한 후, 최영의 휘하에서 『鴻山破陣圖』를 그려 올렸더니 우왕이 李穡에게 명하여 贊을 짓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서해에 가까운 홍산이 왜구의 침략을 당한 후, 해전의 요새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 <충성스러운 시종이 方壽⁴⁹⁾의 뜻을 세웠다>고 적고 있어, 왕의 장수를 빌고자 뜻을 세웠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어서 <쓰러진 삼승과 먼저 죽은 聖인들이 善足으로 九

47) 앞의 글, 『朝鮮金石文總覽』下, p.1287.
48) 『高麗史』世家 제42권 <十九年, 正月甲寅, 幸王輪寺, 觀佛齒, 及胡僧指空頭骨, 親自頂戴, 遂迎入禁中>
49) 수명이 길도록 바라는 것.

蓮을 밟아 올라가, 自他에게 넓게 미치고, 현재와 미래에 복을 얻고자 하는 끝닿을 데 없는 願으로 銀字의 『묘법연화경』7軸⁵⁰⁾을 사성하여, 넓게 무궁자에게 베풀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妙法蓮華經』7軸을 사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처음 제작될 당시 이 사경은 권자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후기의 지방양식의 사경〉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경이며, 鴻山郡의 戶長이 이만한 사경을 제작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9)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妙法蓮華經』8권본 1부

충숙왕 복위 원년(1332), 절첩본, 감지은자, 31.6cm×10.9cm.

〈特爲/皇帝萬年/國王宮主/福壽無疆/國泰民安/法界含零/同生淨土/盡未來際/同作佛事/無一可度/然後乃已/異見聞十方/施主同起/佛種同斯願海/時歲壬申二月如六日誌/棟梁道人玄哲/同願 法諧/同願中瑞司承 吳季儒/鄭氏士龍 達修〉

충숙왕 복위 원년(1332)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8권본 1부의 발원문에 의하면 이 『妙法蓮華經』 8권본 1부는 玄哲, 法諧 두 승려와 中瑞司의 忝으로 있던 吳季儒에 의해 발원·시제 되었고, 鄭士龍과 鄭達修가 이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원문의 내용은 〈皇帝萬年〉에서 황제 두 글자를 평출시키고 있다.

그 뒤를 따라 〈국왕궁주의 복과 수명이 무강하고,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法界의 중생들이 정토에 태어나고, 미래의 끝이 다하도록 함께 佛事를 만드니, 한사람도 빠짐없이 제도되고, 그런 연후 이에 자기와 시방의 견문이 (서로) 다르다할지라도, 다 같이 일어나 시주하였으므로 佛種⁵¹⁾의 그 願海도 같이 하게 해 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皇帝萬年〉이 평출되고 있어, 그가 친원계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제작년을 단지 〈歲 壬申年〉으로만 밝히고 있지만, 『고려사』에 나타나고 있는 오계유의 생존시 壬申年은 충숙왕 복위 원년(1332) 뿐이다.

『高麗史』 世家 충혜왕 2년(1341)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계유가 〈찬성사로서 玉帶를 받고 살인을 한 金彦丘를 왕명을 假託하여 풀어주었다가 行省에 갇혔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계유는 왕명을 가탁하여 김언구를 풀어 줄 만큼 오만방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막강한 친원계의 인사였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원문으로 오계유란 인물은 충숙왕 복위 원년인 壬申年에 中瑞司의 忝으로 있을 때에 이 사경을 발원하였으며, 元의 세력을 업고 막강한 세력을 부렸으나, 9년 후인 충혜왕 2年(1341)에는 수뢰혐의로 실각했음을 알 수 있다.

棟梁道人 玄哲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玄哲은 이 『묘법연화경』 8권본의 제작을 주관한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玄哲은

50) 권자본임을 뜻함.

51) 보살의 수행.

이 작품 외에도 日本 親王院所장의 『彌勒下生經變相畫』를 제작한 인물이다. 『彌勒下生經變相畫』는 至正 10年(1350)에 제작되었다.⁵²⁾ 그러나 玄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유려한 『미륵하생도』를 그린 畫師라면 당대에 상당한 명망을 가졌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시주자이며 실질적인 발원자라고 볼 수 있는 吳季儒라는 인물은 元의 中瑞司에 丞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로 그가 친원계의 실력가였음을 알 수 있다. 『元史』 백관지에 의하면 <中瑞司의 계급은 정3품으로 寶冊의 일을 장악하는데 卿 5명으로 宗3품 承이 정4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⁵³⁾ 그가 사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元으로 간 吳季儒가 中瑞司에는 承이 된 것을 기념하여, 이 사경을 발원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鄭士龍과 鄭達修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들 관계는 부자지간이 아닌가 여겨진다.

10) 유상옥 소장 『大方廣佛華嚴經』제15권
충숙왕 復位 3년(1334), 권자본, 감지금
자, 36.3cm×774.8cm, 변상화 22.5cm
×56.2cm, 보물 제1214호

<榮祿大夫徽政使領/掌謁鄉延慶司事/□
□竊念荷父母訓育之德/皇帝/皇太后/舍人
太子/眷遇之恩/獲事兩宮位階一品/永懷罔
極/從感寸誠/於是金字書寫佛華嚴經一部/

凡八十一卷/首楞嚴經十卷/爰伏/佛乘祈/
天永命伏願/乾坤比於(覆)燾日月/並於照
臨/家國含靈/人神均慶/元統二年甲戌五月
日 謹誌>

변상화보다 앞쪽에다 따로 구획을 만들어, 그 속에도 발원문을 쓰고 있다. 구획의 위쪽에는 보개를 아래쪽에는 보개로 장식하고 아래쪽에는 중판의 연화로 장식된 네모의 구획 속에 발원문을 쓰고 있다. 가장자리는 세선과 태선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발원문 양식 이외에도 같은 元統 2년인 충숙왕 복위 3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원품』과 충숙왕 복위 6년(1337년)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이 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원문 양식이 충숙왕대에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榮祿大夫로서 徽政院의 使領이며, 掌謁의 鄉延慶司의 事였던 鄭禿滿⁵⁴⁾의 관등성명을 소개한 다음, 발원문은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 부모의 훈육의 덕을 입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행에서부터 본격적인 발원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황제, 황태후, 舍人太子의 종실 권속 은혜와 兩宮의 位階 1품의 일을 얻게 한 망극함을 영원히 가슴 속에 새겨, 감사에 따른 작은 성의로 이 금자의 『華嚴經』 1부 무려 81권과 『首楞嚴經』 10권을 사성였으니, 이에 앞드려 원하건데 불승을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하늘의 영원한 명령에 복종하며 원하노니, 하늘과 땅은

52) 吉田宏志 『高麗佛畫의 紀年作品』(『高麗의佛畫』朝日新聞社, 1981年2月25日刊行)

53) 『元史』百官志, <中瑞司秩 正三品, 掌奉寶冊 卿五員 從三品, 丞二員 正四品>

54) 권희경 『고려후기 개인발원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중에서 p.174의 논문과 (주)에서 鄭禿滿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화장박물관에서 보내준 사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진자료가 흐려 췌자를 秀자로 판독했으나, 2005년 11월에 실제 조사를 통해 서체를 확대촬영 해 본 결과 췌자임을 확인했으므로 바로잡는다.

일월이 비추고 가리는 것으로 비유되고, 家國에 있어서도 이와 같기를 원하며, 영성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과 귀신에게는 고루 경사롭기를 빌고 있다.

그러나 『화엄경』 81권을 사경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80 화엄과 더불어 한권을 더 사성한 화엄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경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경변상화는 해인사 사간장경 『大方廣佛華嚴經』 제15권의 목판 변상화와 모티브가 꼭 같아 결코 元의 사경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⁵⁵⁾

발원문은 먼저 발원자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있다. 발원자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충숙왕 3년에 元의 榮祿大夫로서 徽政院의 使領이며, 掌謁이고, 鄉延慶司의 事였던 鄭禿滿이라는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徽政使는 황태후궁의 일을 보는 관서이며, 掌謁⁵⁶⁾은 典寶의 일을 관장하는 元의 관직이다. 鄭禿滿은 元의 順帝 2년에 황태후궁에서 사경에 관한 일을 보던 고려출신의 환관으로 보인다. 또한 禿滿이라는 이름으로 사경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鄉延慶司〉⁵⁷⁾에 관해서는 『元史』에 나타나지 않으나, 雲南延慶司라고는 나타나고 있어,⁵⁸⁾ 〈자신이 고려의 延慶司의 事였다〉는 의미에서 이런 형식으로 쓴 건지, 아니면

順帝때에 이르러 각 지방마다 延慶司를 두어 그렇게 불렀는지 혹은 鄉延慶司라는 관서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鄭禿滿이란 인물이 〈重修華嚴堂經本記〉의 撰文⁵⁹⁾에 나타나고 있는 五蘭古提點禿滿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重修華嚴堂經本記〉에는 高麗僧 慧月이 北京 石經山の 雲居寺 남탑 앞의 石經洞 이르러, 화엄당이 도괴되어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대공덕주였던 資政院 院使 資德大夫 高龍卜과 匠作院⁶⁰⁾ 院使 申黨住에게 시주를 청한 기록 외에도 〈山主人 斯滿, 같은 同緣 공덕주 不花太卿인 不花帖木兒, 摠管 李摠管, 五蘭古提點禿滿들과 또 같은 인연의 공덕주로서 中政院 院使 伯帖木兒王丹夫人, 同願의 西域의 僧侶 智諦들과 보배로운 寫經板을 보수한 고려국 천태종 沙門들, 金玉局 提領 李得全 李得이 새기고 程仲玉이 刊했다〉고 적고 있는데, 그 중 五蘭古提點禿滿이라는 이름이 보여, 이가 바로 鄭禿滿이 아닌가 여겨진다. 不花太卿인 不花帖木兒까지도 전부 고려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五蘭古提點禿滿도 姓을 몽고식으로 바꾼 鄭禿滿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慧月の 石經山 화엄당의 보수는 元統 2년인 충숙왕 복위 3년에 이 사경을 사성하고 7년 후의 일이므로 五蘭古提點禿滿이 鄭禿滿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보게 한다.

55) 이 사경과 발원문 양식이 같은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을 원 사경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의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 둔다.

56) 『元史』本紀 成宗조.

57) 鄉延慶司는 元史本紀 世祖조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雲南延慶司는 나타나고 있다.

58) 『元史』本紀 世祖조.

59) 北京圖書館金石組·中國佛教圖書文物館石經組 編 『房山石經題記彙編』p.3 前言중에서.

60) 匠作院은 將作院임.

11)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충숙왕 복위 3년(1334), 절첩본, 감지금자, 34.1cm×11.5cm.

〈資善大夫將作院使安 賽罕/切念荷父母訓育之恩/皇帝/皇太后/舍人太子/眷遇之德/獲事 兩宮位階二品/永懷罔極/從感寸誠/於是鑿金/寫成大華嚴經一部/凡八十一卷/爰伏佛乘祈/天永年伏願/乾坤比於覆燾日月/並於照臨家國/咸寧人神均慶/元統二年甲戌九月 日誌〉

이 사경 역시 변상보다 앞에 보개와 중판의 연화문이 상하로 네모의 구획 속에 쓰여 있는 점이 鄭禿滿의 『大方廣佛華嚴經』 제15권과 같다. 다만 발원자와 발원문의 내용에 있어서 극히 일부가 틀리고, 네모의 구획양식 중에서 좌우의 가장자리 양식이 호림박물관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의 경우 단순하게 세선과 태선으로 장식 되고 있지만, 이 사경에서는 안팎으로 세선·태선·세선과 세선·태선의 윤곽선 속에 금강저·갈미를 그려 넣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두 권의 『대방광불화엄경』은 80화엄으로 양이 방대하여, 몇 명의 발원자에 의해 완성된 80화엄 중에서 제15권과 『行願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 사경의 변상화가 해인사 사간장경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변상화와 모티브가 같아 결코 元의 사경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⁶¹⁾

발원자는 資善大夫이며, 將作院의 使인 安

賽罕이다. 安賽罕 역시 사경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원문에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 부모의 훈육에 은혜를 입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大方廣佛華嚴經』 제15권과 거의 같다.

발원문은 〈皇帝, 皇太后, 舍人太子의 종실 권속 덕으로 兩宮의 位階 2품의 일을 얻게 한 망극함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 감사에 따른 작은 성의로 이 鑿金의 금자 『화엄경』 1부, 무려 81권을 사성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불승을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이어서 〈하늘의 영원한 세월에 복종하며 원하노니, 하늘과 땅은 일월이 비추고 가리는 것으로 비유되며, 家國에 있어서도 이와 같기를 빌고, 영성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과 귀신에게는 고루 경사롭기를〉 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大方廣佛華嚴經』 제15권과 같다.

이 사경은 〈安塞罕〉이 〈將作院〉의 院使로 정2품의 資善大夫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발원한 것임을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발원문에 나타난 安賽罕의 관직에 대해 살펴보면 資善大夫는 元의 정3품의 산관(散官)이다. 그러나 將作院의 〈使〉는 정2품이었다는 것을 이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將作院 使에 관해서는 『元史』 百官志에서도 정2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將作院은 宋의 화원과는 달라도 공작미술에 관한 일도 맡아 본 부서이다.⁶²⁾ 『元史』에 의하면 至元 30년(1294-충렬왕20년)에 처음

61) 이 사경과 발원문 양식이 같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의 발원자 安塞罕이 元의 사람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 사경일 것이라고 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의 해 온 서울의 유수한 일간지의 문화부기자의 도에 넘치는 향의가 있었음으로 이에 밝혀 둔다.

62) 〈將作院秩正二品, 掌成造金玉珠翡翠象寶具冠佩器皿織造刺繡疋紗羅異樣百色造作, 至元三十年 始置院 (『元史』 百官志 8)

설치되었으며, 使는 1명이었으나 그 뒤 증원되어, 延祐 7년(1320)에 省院使 2명을 증원됐으며, 후에 院使 7명을 두어 정2품으로 하였다는 기록⁶³⁾이 있다. 이 기록으로 安塞罕은 將作院의 최고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元統 2년에 사경이 완성되던 해로부터 14년 전인 延祐 7년 사이에 정2품의 院使가 7명으로 증원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경은 安塞罕의 벼슬이 將作院의 院使로서 정2품의 위계를 받는데 대해 감사하여 『대방광불화엄경』 81권을 발원하고 또한 施財했음을 알 수 있다.

〈安塞罕〉이라는 이름이 元의 이름이라는 것과 安塞罕이 將作院의 使였다는 점 등을 들어, 元의 사경이라는 견해가 일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安塞罕이 몽고식 이름이라면 발원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安〉과 〈塞罕〉 사이를 띄우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安과 塞罕 사이를 띄웠다는 것은 〈安〉은 성이고, 〈塞罕〉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塞罕〉은 몽고어로 〈安〉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가 안씨 성을 가진 인물로서 이름을 몽고식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성과 같은 의미로 〈塞罕〉이라 이름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 12) 日本 福祥寺 소장 『大方廣佛華嚴經』제 60권
 충숙왕 복위 5년(1336), 절첩본, 감지은자, 31.8cm×10.4cm.
 〈比丘善之/與密直副使任瑞/知識雲山/

同發誓願/普集衆緣/以黛紙銀泥/倩人書寫/是經三本/流通供養/以此功德/仰願王年有永/國祚延洪/於此善根/或捨納財賄/或設供養/乃至讚歎隨喜/凡有緣者/生生世世/得大自在行普賢行/證如來智/盡衆生界/一時成佛者/至元二年丙子八月 日誌/功德主祇林寺住持大禪師善之/前密直副使上護軍任瑞/奉聖寺住持大師 孜西/禪師 雲其/禪師 萬一/緣化比丘 雲山 明一〉

〈裏書〉

周經六十七幅, 至元二年五月二十七日 永△△書

日本 神戶 福祥寺 소장의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제작된 『大方廣佛華嚴經』 제60권의 발원문에는 皇帝萬年이 아니라, 王자가 평출되어 있어, 충렬왕 이후 고려사경에서는 보기 드문 발원문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친원계의 인물인 任瑞가 祇林寺 住持인 大禪師 善之와 함께 발원한 사경임에도 불구하고 王을 卞出시킨 점에서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경의 발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比丘 善之와 더불어 밀직부사 任瑞와 知識雲山이 같은 서원을 발하여, 넓게 인연 있는 무리를 모아, 黛紙에 은니로서 사람(사경승내지 사경사) 청하여 이 3본을 서사하여, 공양으로 유통시키니, 이러한 공덕으로서, 우러러 원하노니, 왕년이 영원하고, 길조가 나라에 크게 이어지며, 이러한 善根으로써, 혹자는 재물을 희사하고, 혹자는 공양에 대해 설명하고, 내지는 이에 隨喜함을 찬탄하니, 무릇 인연이 있는 자들이 세세 생 대자재행과 보현행을 얻고, 여래의 지혜를

63) 至元三十年 始置院 使一員, 經歷都事各一員, 三十一年增院使一員, 元貞元年, 又增二員, 延祐七年, 省院使二員, 後定置院使七員正二品, 同知二員正三品, 同僉二員正四品(下略) (『元史』百官志 8)

증명하여, 중생계를 다 할 때, 일시에 성불자가 되기를 빌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으로 기림사의 주지인 대선사 善之가 대공덕주이고, 密直副使를 지냈던 상호군 任瑞와 知識雲山은 함께 원을 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善之와 知識雲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任瑞는 『고려사』에 나타나는 인물이다.

任瑞는 그의 동생 任伯顏禿古思가 元의 仁宗 때 황실에서 활약한 인물이었다고, 任瑞 역시 그의 동생의 힘으로 밀직부사까지 지낸 친원계의 인물이다.⁶⁴⁾ 그러나 발원문 양식은 「皇帝萬年」이 평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王」을 평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경발원문 양식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任瑞와 그의 동생 任伯顏禿古思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任瑞는 朱冕의 집 노예의 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任伯顏禿古思는 스스로 거세하고 宦者된 인물로 元 仁宗의 환관이었으며, 충선왕 때 庇人君을 지냈으나, 충선왕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元의 仁宗이 아직 동궁일 때 任伯顏禿古思는 그를 섬겨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충선왕이 吐藩으로 귀양 가는 데도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任瑞는 그의 동생 任伯顏禿古思가 주살되던 충숙왕 10년까지 친원의 세력으로 고려왕실에 압력적 존재로 군림하던 인물이었으나,⁶⁵⁾ 任伯顏禿古思가 주살 당한 후, 두려워하여 도망가니, 그의 집이 籍沒되었다고 한다.⁶⁶⁾

任伯顏禿古思가 죽은 해가 충숙왕 10년(1323)이고, 이 사경은 제작된 것은 충숙왕 복위 5년

(1336)으로 비록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任瑞가 충숙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任瑞가 동생 任伯顏禿古思가 죽은 후, 기림사 주지였던 대선사 善之를 만나 이 사경을 제작하면서 충숙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별히 「王」자를 평출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王」자를 평출시킨 장본인은 역시 대선사 善之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任瑞는 任伯顏禿古思가 죽은 후, 일신에 닥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경주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대선사 善之가 기림사 주지였다는 점과 같은 원을 낸 大師 孜晝가 奉聖寺의 주지라는 점이 任瑞가 경주에 피신해 있었다는 단서가 된다. 기림사는 현재도 경주에 있으나, 奉聖寺도 경주의 사찰이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경주에 있던 사찰로 密僧 惠通에 의해 창건되었고 하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 사찰이 조선중기까지 존재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몸을 피해 경주에 내려간 任瑞가 기림사 주지 大禪師 善之를 만나, 이 사경제작에 참여 하였으니, 발원문 양식에 대해 任瑞가 알가알부할 처지는 아니었다고 본다. 任瑞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 발원문의 양식에서 「王」을 평출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任瑞 자신이 아니라, 大功德主였던 善之의 의지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大功德主가 승려 善之인 만큼 사경제작의

64) 『高麗史』列傳 任瑞조.

65) 上同.

66) 『高麗史』列傳 任瑞條와 任伯顏禿古思條.

모든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일을 맡았던 발원자였을 것이고, 任瑞는 施財者였을 것이며, 知識雲山은 사경발원에 善之를 도와 함께 일한 승려였을 것으로 보인다. 봉성사 주지였던 대사 攷書와 함께 이 사경 제작에 협조한 禪師 雲其와 萬一은 校勘을 맡았던 선사들이 아닌가 생각되며, 緣化比丘 雲山 明一은 이 사경의 書者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3) 호암미술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제 31권

충숙왕 복위 6년(1337), 권자본, 감지은자, 31.1cm×881.7cm.

〈宣 授大府少監同知密直司事崔安道/與妻綾城郡夫人具氏/同發願銀書華嚴大藏經/所願 皇帝萬年/下迫途衆生/先亡父母/離苦得樂/次予夫婦/現增福壽/永滅災殃/未來得生蓮華之界/見佛聞法/悟無生忍/如佛度一切四生之類/共證菩提者/至元三年 丁丑四月 日化主皎然〉

충숙왕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제31권의 발원문에도 역시 〈皇帝萬年〉이 나타나고 있는데, 〈皇帝〉라는 두자가 平出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친원계의 인물에 의해 사성되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발원문에는 〈元에서 大府의 少監이라는 벼슬을 제수 받고, 고려의 密直司의 事인 崔安道가 자신의 처인 綾城郡夫人 具씨가 같이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銀字로 華嚴大藏經을 발원하는바〉이라고 사경의 목적을 먼

저 밝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皇帝萬年〉의 기록에서 皇帝까지를 평출시킨 후, 행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아래로 삼도에 머무르고 있는 중생과 죽은 부모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다음으로 자신의 부부가 현세에서 복과 수를 더하며, 영원히 재앙을 멀하고, 미래에는 연화계에 태어남을 얻어, 부처를 만나 불법을 듣고, 無生法忍을 깨달아, 여래와 같이 일체 四生の 종류를 제도하여, 함께 菩提者를 증명하기를〉 빌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앞부분은 탐욕과 허영에 가득한 내용이나, 황제만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불교적이라 하겠다. 이 사경제작을 주도한 승려의 불교적 양심을 엿볼 수 있다.

친원계의 인물이었던 崔安道는 元에 가서 中常監 承을 제수 받았고, 太府大監으로 옮겨, 詔書를 받들고 귀국한 사실⁶⁷⁾을 자랑하고자 이 사경을 발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列傳 崔安道 조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으나, 앞 뒤 문맥으로 볼 때, 마치 忠惠王代의 사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경발원문에 의해 충숙왕 복위 6년 때의 일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마치 그가 〈자신의 처 綾城郡夫人 具氏〉와 함께 발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봐서 崔安道가 직접 발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 구씨에 의해 발원·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崔安道는 그의 어머니는 宮婢 출신으로 천출이었으나, 內寮로서 충선왕을 燕京에서 섬겨, 漢語와 蒙古語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친원계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高麗

67) 『고려사』열전 제6권의 崔安道 조.

史』列傳 崔安道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충숙왕대에도 왕이 참소를 당하여 元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왕을 시종해서 田民을 하사받았고, 그 후 元이 고려에 行省을 세우려 할 때도 金怡와 더불어 이를 극구 변명하여 행성을 세우는 일이 무산 시켜 다시 민전을 받았고, 그 후 왕이 여러 번 추천하여 상호군이 되었고, 충숙왕 14년에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충혜왕 초년에는 그가 監察大夫를 제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겨우 10세 된 아들 璟이 과거에 합격시킨 일로 許崑, 趙廉, 鄭天濡 등이 반대하면서 璟이 借述하여 등제했다는 점과 조모가 미친한 출신이라 이유로 하여 관복과 첩자를 주려 하지 않자, 왕이 省官에게 독촉하여 서명케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는 충숙·충혜 양대에 원과 고려 사이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 하였던 親元의 인사였다.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21권

충숙왕 복위 7년(1338), 절첩본, 상지은자, 31.4cm×2.4cm.

〈恭惟/本師所演/一大藏經/出生死之津梁/登涅槃之梯磴/一四偈功/猶巨涯八万法門/德難可說/況華嚴大經/諸教根源/輸王敵(嫡)子 佛/佛出世/先說華嚴/良以此也/是以先寫此經/次成般若/以至諸部/成遂願王/上資玄福/於一人下同善慶/於万姓同願施主/各隨所願一一稱/遂父母 師/長法界含生/俱霑利樂者/功德主兩街都僧統國一大師 向如/大禪師 智然/僉議評理致仕 金延

/前慶山縣令 金臣优/妻 李氏/化主道人 自元道人 戒興/至元四年戊寅正月 日 誌〉

사경의 발원문으로 볼 때 至元 4년 충숙왕 복위 7년(1338)에 사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덕주는 〈兩街都僧統 國一大師 向如〉라고 기록하고 있다. 向如是 충숙왕대에 활약했던 화엄종단의 승려 體元으로 이제현의 家兄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⁶⁸⁾

이 사경의 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가 생각하니 本師가 하나의 대장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태어나서 죽음의 津梁을 (거쳐) 열반의 돌비탈길(梯磴)을 오를 적에, 一四句를 계송 하는 것은 공덕이 있음이나, 마치 팔만법문이 비랑과 같이 어려워, 덕을 설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과 같다. 하물며 화엄대경의 여러 근본을 가르침에 있어서야. 오히려 팔만법문의 덕은 비랑과 같아 가히 설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화엄대경의 여러 근본을 가르침이야, 왕의 적자가 佛로 보내져, 佛이 출세했고, 먼저 화엄경을 설하였으니, 이를 좋아해서 먼저 이 경전을 사경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반야경』이 성립되었고, 諸部에 이르게 됨으로써, 마침내 願이 성립되었다. 위로는 현복으로 재산을 이루고, 一人 아래로는 좋은 경사를 갈게 하여, 만백성이 시주의 원을 같이하였으므로, 각기 소원하는 바를 일일이 칭하게 하여, 마침내 부모와 스승에 따르게 하고, 길이 법계에서 舍生⁶⁹⁾하여, 다 함께 利益됨과 즐거움에 젖기를)기원하고 있다.

사경제작에 직접적으로 힘쓴 인물로 僉議評理를 은퇴한 金延를 빼 놓을 수 없다. 金延이

68)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1996, pp.197-202.

69) 법계의 중생.

라는 인물은 이 『大方廣佛華嚴』 제21권이 사성되던 해에는 이미 僉議評理의 직을 물러나 있었다는 것을 발원문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金延은 『高麗史』 충렬왕 28년(1302)조에 의하면 海南館別監의 직에 있었다.⁷⁰⁾ <殿中侍史인 金英佐가 海南館別監의 직에 있던 金延의 백성을 侵魚하는 것을 논하다가 왕의 뜻을 거슬러 봉양부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왕의 칙근이었을 金延의 僉議評理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 강등의 피해를 입을 정도로 金延은 왕과 가까웠던 인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충렬왕 28년은 元이 別帖本兒等を 파견하여, 사경승을 징용해 갔던 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金延은 이미 충렬왕 때로부터 元의 고려사경에 대한 관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고려왕실의 사경제작의 열기에도 익숙해 있었다고 본다. 36년 후인 이 사경이 제작되던 충숙왕 복위 7년에는 승차를 거듭하여 관직이 첨의평리에까지 올라 있을 만큼 권력의 주변에 있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延이 致仕한 僉議評理라는 관직에 대해 『高麗史』 百官志를 살펴보면 <評理는 처음 목종 때 시작 되었지만, 문종 때에 이르러 1인으로 하고, 녹봉도 從二品으로 정해 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忠烈王 元년에 僉議參理라고 개정되었고, 충렬왕 34년 충선에 의해 評理로 바꾸어 인원을 3명이나 증원하였으나, 충숙왕 17년 다시 參理로 고쳤으며, 공민왕 11년에야 비로소 僉議評理라고 했다>고 하는데, 발원문에서는 충숙왕 복위 7년에 僉議評理를

은퇴했다고 적고 있어, 『高麗史』 기록보다는 본인에 의해 직접 쓰인 발원문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사람 전 경산현령 金臣优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지 아니 할 수 없으니, 그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고, 그것도 지방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 이씨까지 발원문에 기록되고 있다. 많은 시주를 했다는 것이 된다. 一人을 평출하고 있어, 이 사경을 발원한 인물이 친원계의 인물들이 득세하고 있던 속에서도 고려국왕을 섬겨 우대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15)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

충혜왕 복위 원년(1340), 절첩본, 감지금자, 31.4cm×10.8cm, 표지화 감지금·은니.

<發願偈/妙法蓮華勝經典/金泥成願不淺/願此一部七大卷/諸佛會中隨佛現/證明諸佛無礙辯/開示衆生佛知見/發願息影沙門淵鑑/施財/重大匡劉成吉/掌合朱暉/監門衛錄事朴中漸/幹事道者戒禪師惲亮倫/至元六年庚辰六月日柏巖聰古>

이 사경은 至元 6년(1340) 충혜왕 원년에 사성된 작품이다.

발원문의 맨 앞에 發願偈라고 적고 있어, 발원문을 계승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妙法蓮華經』 경전은 최고의 뛰어난 경전이므로, 금니로 사성하고자 하는 염원이 가볍지 않아, 이 『妙法蓮華經』 1부 일곱 권의 대 경전을 발원하게 되었으며, 여러 佛會 중, 佛의 현신에 따라 諸佛의 장에 없

70) 『高麗史』世家 제32권 忠烈王 28년 5월 丙午 조 <殿中侍史, 金英佐, 論海南館別監金延, 侵漁百姓, 忤旨, 貶爲鳳副使>

는 言辯이 증명되고, 중생에게 불의 지견⁷¹⁾을 열어 보이도록 빌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으로 볼 때, 순수한 불심으로 이 사경을 사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원자는 息影沙門 淵鑑이며, 시재는 重大 匡 劉成吉과 朱暉, 監門衛 錄事 朴中漸으로 되어 있다. 이들 시재자 중 重大匡인 劉成吉 監門衛 錄事 朴中漸은 관직이 적혀 있어, 주목되는 인물이다. 유성길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2품의 상당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사경에 관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監門衛 錄事 朴中漸이 사경 발원에 시재자가 된 점은 의아한 감이 없지 않다. 監門衛에는 散員 錄事 2명씩을 두고 있었는데, 散員이 정8품이었으므로 녹사 역시 정8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8품의 監門衛 錄事 朴中漸은 그 개별적인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으나, 監門衛⁷²⁾의 錄事로서 내직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경에 대한 식견이 있어, 금자사경에 施財 했을 것으로 본다. 간사를 맡았던 道者, 戒禪, 師憚, 克倫들도 승려이었을 것이다.

書者였던 柏巖 聰古에 관해서도 알 수 없으나, 사경승려였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聰古는 이 사경을 사성한 후, 그 이듬해인 충혜왕 2年(1341)에 『佛說阿彌陀經』을 사서⁷³⁾ 했다는 것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6) 日本 鏡神社 所藏 佐賀縣立博物館 『妙法蓮華經』燒經

충목왕 원년(1345), 절첩본, 백지묵서, 40.5cm×15.1cm.

〈大元至正五年乙酉 九月 日/無柱菴沙門 天運誌〉

앞에 사성기록이 있겠으나, 알 수 없고 제작년대와 사성기록자가 무주암에 천운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묘법연화경』 1부가 鏡神社의 화재 때 화재의 재난을 당했으나, 남겨진 부분의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많아 보수의 여지가 있다.

17) 日本 太平寺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
충정왕 3년(1351), 절첩본, 감지금자,
26.1cm×11.1cm.

〈以此功德普廻向/上報四恩/下濟三有/早明般若/讀佛慧/命利樂/有情和謹和/至正十一年辛卯十月 日誌/施主通議大夫肅政兼訪使月城府院君崔濬/宣授東陵郡夫人金氏〉

至正 11년인 충정왕 3년(1351)에 제작된 이 사경은 通議大夫肅政兼訪使月城府院君인 崔濬의 시재에 의해 사성된 것이다.

발원문의 내용은 〈이 사경의 공덕으로써 두루 회향하고, 위로는 四恩⁷⁴⁾에 보답하고 아래로 三有⁷⁵⁾를 구제하며, 빨리 반야를 밝히고, 불의 지혜의 읽어, 有情⁷⁶⁾과 謹和⁷⁷⁾에게 즐거움과 이익이 있기를 명한다〉는 내용이다.

71) 사리를 증명하는 지식.

72) 『高麗史』百官志 제21권.

73) 절첩본의 紺紙金字, 22.0cm×8.7cm.

[발원문] 比丘聰古/特爲/慈親寫此阿彌陀經一部/以定福壽/於三寶光中/吉祥如意者/至正元年五月 日.

74) 父母 國王 中生 三寶의 은혜 혹은 부모 스승 국왕 시주의 은혜.

75) 欲有, 色有, 無色有를 뜻하는 것으로 三界와 같은 의미로 쓰임.

通議大夫 肅政 訪使月城府院君에 오른 최준은 충숙왕 14년에 叅理로서 일등공신이 되었던⁷⁸⁾ 인물이고, 충숙왕 15년에는 評理⁷⁹⁾가 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로서 충분히 사경을 발원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관직에서 通議大夫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함은 『高麗史』의 관직과 崔濬이 직접 당대에 기록한 이 사경발원문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高麗史』 百官志 文散階에 의하면 충렬왕 원년의 관제 개정 때 종3품의 산계였으나, 충렬왕 34년의 충선에 의해 관제의 개정 때와 충선왕 2년의 개정 때 통의대부는 없어졌다가 공민왕 5년의 개정 때, 다시 정3품 下가 되었다. 그러므로 施財者인 崔濬은 이 사경을 제작하던 충정왕 3년에는 通議大夫라는 散階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직접 시주하고, 기록한 발원문인 만큼이 발원문을 더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8)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 7권 본 1부

공민왕 2년(1353), 절첩본, 감지은자, 30.3cm×11.1cm, 표지 감지금·은니.

〈竊聞讀誦/受持解說/書寫流通/五種饒益/一般弟子/洒湊懇於眞詮/因倩人而敬寫/茲有爲微善/即無上勝功/普徧粧嚴/悉皆霑聞/伏願茫茫三有/蠢蠢四生/頓悟一乘/

國宗永盡/多生妄惑/如窮子傳家業/而信知本有/若醉客得衣珠/而勿向他求/不借化城/直躋寶所/次願弟子飽饗王膳/圓領佛懷/信 依正皆/是妙經體色香/無非中道/淨六根而隨意通經/誓等法師功德/離五障而轉身成佛/願同龍女機緣/自從現在之時/窮 盡未來之際/生生供養/在在弘揚者/至正十三年癸巳八月 日誌/於至正順大夫肅雍府右司尹 朴 允珪/施主 金成/奉寄進妙法華院常住/施主形角甄〉

至正 13年인 공민왕 2년(1353)에 사성된 작품이다. 발원자 朴允珪가 正順大夫로서 肅雍府 右司尹에 이른 것을 자축하여 발원하였고, 이에 金成의 시주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肅雍府에 관해서 『高麗史』 世家 공민왕조를 살펴보면 〈원년 2월 갑신일 조에 대비의 德慶府를 文睿 고치고, 公主府를 설치하여, 肅雍이라고 일렀다〉라는 기록⁸⁰⁾이 있어, 肅雍府는 魯國大長公主를 위한 관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¹⁾ 朴允珪는 바로 이 肅雍府 右司尹의 직에 있었으며, 文散階는 貞順大夫로 정 3품 上에 이른 인물이다. 더구나 朴允珪는 魯國大長公主의 관속으로 있었으므로 충분히 사경을 발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원문의 내용은 〈가만히 생각하니, 듣고, 읽고, 외우고, 받아서 지니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유통하는 다섯 종류의 이로움을 넉넉히 하

76) 중생.

77) 수행자.

78) 『高麗史』世家 제35권 忠肅王 14년 조.

79) 『高麗史』世家 제35권 忠肅王 15년 조.

80) 〈甲申, 改大妃德慶府, 曰文睿, 置公主府, 曰肅雍〉

81) 『高麗史』百官志諸妃公主府條 참조.

여, 일반제자들이 마침내 진리의 설명에 성심을 모았고, 인하여 사람(사경승)을 칭해, 정성스럽게 사경하니, 이것은 아주 작은 선이 될 수 있음이니라. 그러한즉 그 최상의 빼어난 공이 없어도, 보편장엄의 세계에 마침내 모두 두루 윤택함에 젖을 수 있음이니라. 엎드려 빌 건데 끝없는 많은 중생과 끝없이 어리석게 굴뚝거리는 4생(四生)⁸²⁾들에게 一乘을 깨닫게 하고, 나라와 종실이 영원을 다하고, 궁자와 같이 망령된 의혹이 많이 생겨도 가업을 전해 받고, 믿음을 가지고 本有를 알고,⁸³⁾ 마치 취객이 의복과 보배를 얻고서도 다른 것을 구하러 가는 것과 같지 않게 하고,⁸⁴⁾ 化城⁸⁵⁾을 빌리지 아니하고도 바로 寶所⁸⁶⁾에 오르게 하며, 다음으로

제자들이 왕의 성찬에서 포식⁸⁷⁾하기를 원하며, 袈裟로서 佛을 품어, 믿음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하니, 이 『묘법연화경』체와 색과 향은 중도가 아닌 것이 없으며, 6근을 깨끗이 하여⁸⁸⁾ 뜻에 따라 경전을 통하게 하니, 『法師功德品』등의 비유들처럼, 五障을 이탈해서,⁸⁹⁾ 몸을 바꾸어 成佛한 龍女가 튀어 오른 인연과 같기를 원하며,⁹⁰⁾ 현재로부터 미래에 무궁토록 생생 공양하고, 재제에 넓고 높은 자가 될 것)을 빌고 있다.

이 사경발원문은 다른 사경의 발원문과는 달리 지극히 종교적인 색체를 띠고 있다.

공민왕대에 이르렀으므로 이미 〈皇帝萬年〉이 쓰일 계재가 아니었고, 종실이 영원하기를

82) 胎生 卵生 濕生 化生

83)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2권 「신해품(信解品)」의 「아비를 떠난 자식이 50년이 지난 후, 거지가 되어 돌아 왔을 때 부자가 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놀라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는 窮자와 富裕한 長老의 내용 중 궁자를 뜻함.

84)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4권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의 내용으로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만취되어 누웠는데, 그때 그 집의 주인은 외출하기 전, 자는 친구의 옷에 값을 해야될 수 없는 보배를 넣어 주었으나, 그 친구는 잠에서 깨어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보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작은 소득에 만족하며 살았다. 얼마 후, 집주인이 다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며 이제 그 보물로 일상의 모든 것을 사도 모자람이 없을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을 뜻함.

85)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3권의 「화성유품」의 내용 중에서 <(전략) 5백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사나운 길에 날은 저물고 인적마저 끊겨, 무섭고 두려운 곳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을 가려 할 때, 그 지리를 잘 아는 한 도사(導師)가 있어, 무서워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3백유순을 지난 지점에서 하나의 城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즐겁게 가지도록 하면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자 안온하여 이미 제도 되었다고 생각하며 피로를 풀고 휴식하려 할 때, 도사는 다시 화성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깝다고 알리면서, 성은 그대들을 휴식케 하기 위해 만든 化城이니라.> 한 내용을 말함.

86) 영원한 성 열반의 경지 혹은 극락세계.

87)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3권의 「수기품(授記品)」의 계승 중에 대목견련(大目犍連), 수보리(須菩提), 마하가전연(摩訶迦施延)이 합창하여 세존의 존안을 우러러 보며 사되었다는 내용 중 「주린 배로 헤매다가 대왕의 성찬 만났어도 마음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야 감식(敢食)하듯, 너희들(대목견련, 수보리, 마하가전연) 성불한다는 ‘불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중략) 만일 수기 주신다면, 이제야 안락하리다」

88)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6권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내용 중에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사경한 이의 공덕으로 六根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리라)는 내용임.

89)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6권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내용 중 「만약 선남자 선여자가 이 법화경을 지녀, 읽고, 외우며, 새겨 설법하고 사서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공덕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

90)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4권의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의 내용 중에서 축생용녀(畜生龍女)의 성불 장면으로 용녀는 그녀의 성불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보살(智積菩薩)과 사리불존자(舍利弗尊者)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존에게 보주를 바치며, 남자로 변해서 성불했다는 내용이다.

빌고 있으나, 국왕이라고 칭해서 平出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 발원문이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발원문의 제일 첫머리부터 『묘법연화경』 7권본의 제6권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받아 지니고, 사경하는 5종으로 경전을 유통시킨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한 발원문의 형식도 그러하거나 제3권 「信解品」에서 집을 나간 長子의 아들 窮子의 설화나, 제3권의 「化城喻品」의 化城에 대한 설화, 제3권의 「授記品」의 계승 중에 왕의 성찬에 초대된 제자들의 설화, 제4권의 「提婆達多品」의 畜生 龍女の 成佛說話, 제6권 「法師功德品」의 공덕에 관한 내용 등을 인용한 것으로 법화경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記述하고 있어, 이 발원문을 쓴 인물이 불교경전 중에서 『법화경』의 영험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慶北大學校博物館 소장 『首楞嚴經』

공민왕 5년(1356), 절첩본, 마지은자, 31.0cm×0.8cm,

〈功德花嚴海印住持大師信聰/至正十六年正月 日/星山前直講 爲李邦翰亡母李氏〉
[裏書]

〈菩薩本行經卷下 第十七丈覆〉

지정 16년(1356) 공민왕 5년에 寫成된 것이다.

공덕주는 화엄사찰인 해인사주지였던 信聰이지만 실제적인 시재자는 李邦翰이다.

成均館의 直講으로 있었던 李邦翰이라는 인물이 죽은 어머니를 위해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직강은 충선왕의 관직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승(丞)이라 칭하던 것을 이렇게 고쳤으며⁹¹⁾ 공민왕 때 직강은 종5품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직강이므로 그가 직강일 때는 종3품이었을 것으로 보이며,⁹²⁾ 상당한 위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위해 單本人 『首楞嚴經』 사경을 발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20)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및 『文殊上乘無生戒法』·『六祖壇經』(背面)

공민왕 6년(1357), 절첩본, 백지금자, 25.9cm×11.24cm, 표지 감지금·은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발원문]

〈將此成/功德圓滿/上報佛祖之恩/下濟三塗之苦/端爲/祝延當今主上壽萬歲/公主王后壽齊年/十方檀信/增福壽/風調雨順/國泰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者/至正丁酉潤九月 日誌/持經主 戒栴/施主崔廸 一莊/同願金 清 戒心/同願書寫○○○○〉

[『文殊上乘無生戒法』 발원문]

祝延/皇帝聖壽萬歲/太子諸王壽等千秋/皇后皇妃金枝永茂/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官僚遷祿位/天下之太平/風調雨順國泰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者/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

뒷면에는 『六祖法寶壇經序』가 사서되어 있

91) 「高麗史」百官志成均館條 참조.

92) 上同

는데 다음과 같은 미서가 있다.

〈古筠比丘/德異 撰/三寶普利群生者/六祖禪師法寶壇經〉

전면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발원문과 『文殊上乘無生戒法』이 쓰여 있고, 배면에는 『六祖壇經』이 실려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발원문은 〈장차 이것(사경)을 완성하여, 공덕이 충만하고, 위로는 佛祖의 은혜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삼도⁹³⁾에서 고생하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를 먼저 빈 후, 〈진실로 지금의 주상의 수명이 만세에 이르기를 축연하며, 공주인 왕후의 수명도 같기를 빌고, 온 세상의 불교신자들이 福과 壽를 더하고, 날씨가 고르고, 국민이 편안하고, 佛日 더욱 빛나고, 법륜이 상전하기를〉 빌고 있다.

이 경전은 崔尙의 일가의 시주에 의해 사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전을 늘 가지고 있을 인물 즉 공덕주는 戒桁이며, 金淸과 戒心이 함께 시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필사자가 두 명인 듯하나 물에 지워져 알 수 없다.

崔尙은 『高麗史』에 의하면 숙종 즉위년에 金吾衛의 上將軍으로 攝刑部の 尙書로 발탁되어, 숙종 원년에는 정월에 神號衛 上將軍 刑部の 尙書가 되었고, 6월에 知奏事 殿重監이 되었던 인물⁹⁴⁾이다. 金吾衛 上將軍, 神號衛 上將軍은 명예직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刑部の 攝尙書職에 있다가 숙종 원년 정월에 바로 형부상서가 되었고, 그 해 6월, 族屬의 譜

牒을 관장하는 殿重監의 奏事가 되었다. 奏事는 왕에게 모든 것을 奏는 직책이므로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崔尙의 가문에서는 선조 崔尙을 자랑하기 위해 이 사경 제작에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숙종 대에 왕의 측근으로 실력자였으나, 그 후 무신난과 더불어 몰락했던 최적의 일가들이 戒桁이 발원하는 사경에 크게 시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경이 제작된 바로 전해는 공민왕 5년(1356) 5월 정유에 기철의 捕殺事件이 있어, 기황후의 오빠 기철과 權謙과 盧頭이 전부 죽고, 개혁정치에 힘을 실은 6월 乙亥에는 至正 年호를 중지 할 만큼 공민왕은 강하게 왕의 의지를 관철하던 해 해였으므로⁹⁵⁾ 발원문에는 〈皇帝萬年〉은 기록되지 않고, 〈지금의 주상전하의 만세와 공주〉⁹⁶⁾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년대를 밝힘에 있어서는 여전히 至正 年호를 사용하고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같은 시기에 발원되었으므로 일단 至正 정유년인 공민왕 6년(1357)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文殊上乘無生戒法』의 발원문에서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서 보여주는 특징과는 달리 여전히 〈皇帝聖壽萬歲〉를 평출시켜, 元 황제의 壽를 빌고 그 다음으로 태자와 元의 제왕들의 수를 빈 후, 황후·황비의 金枝永茂를 빌고 있는데, 皇帝의 〈皇〉자가 태자와 황후·황비는 보다 1차 평출되고 있으며, 뒤이어 국왕전

93) 地獄, 餓鬼, 畜生을 의미 함

94) 『高麗史』世家 제11권 숙종조.

95) 『高麗史』世家 제39권 공민왕 5년조.

96) 〈當今主上壽萬歲 公主〉

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태자나 황후·황비의 <太>와 <皇>자가 이 國王殿下의 <國>자보다 1자 평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발원문의 양식은 泰定 年間に 指空이 고려를 방문하였을 때 제작된 사경의 발원문을 그대로 베껴 쓴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발원문은 <국왕전하의 복과 수명이 무강하고, 文武百僚의 祿位가 더욱 높아지기를 빌며, 風調雨順하여 國泰民安하기를 기원하고, 佛日 더욱 빛나고, 법륜이 상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덧 붙여 <석가여래의 遺教弟子 서천선사 지공의 일승계법을 전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密敎經典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 이어 『文殊上乘無生戒法』이 사성된 것은 指空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해인사성보박물관 소장 『文殊最上乘無生戒法』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李穡에 의해 쓰인 회암사 『檜巖寺薄陀尊者指空浮屠碑並書』의 기록에서 <인도로부터 가지고 와서 늘 가지고 다니던 『문수사리무생계(법)』 2권과 구양승지(歐陽承旨)가 발문을 쓴 『원각경』 사경』에 대한 기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21) 日本 佐賀市 慶闇寺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
공민왕 16年(1367), 절첩본, 백지금자,
29.5cm×10.5cm,
<至正二十七年丁未三月 日誌/施主 奉善大夫前興威衛精勇護軍朴光美/吹火郡夫人 林氏>

두 줄의 眞言을 먼저 기록하고, 바로 至正 27년인 공민왕 16年(1367)에 奉善大夫이며, 前興威衛 精勇護軍인 朴光美와 그의 처인 吹火郡夫人 林氏의 시주에 의해 사성된 작품이다.

그는 『高麗史』 百官志 文散階條에 의하면 공민왕 11年(1362)에 관직의 개정이 있을 때, 奉善大夫는 종4품이었다. 그는 또한 興威衛의 精勇이었고, 호군을 제수했음을 알 수 있는데, 興威衛는 『高麗史』 百官志 西班條에 의하면 <興威衛는 保勝 7領과 精勇 5領으로 되어 있으며, 衛에는 상장군 1인 두되, 정3품으로 하고, 대장군 1인을 두되, 종3품으로 하며, 每領에는 장군을 각1인을 두되 정4품으로 하고, 중랑장은 각 2인으로 하되 정5품으로 하였다> 기록⁹⁷⁾ 하고 있다. 精勇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高麗史』 百官志 제35권의 兵制에서는 <興威衛는 保勝 7領과 精勇 5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朴光美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같다. 종4품의 奉善大夫였던 만큼 충분히 사경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경은 朴光美에 의해 사성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吹火郡夫人 任氏에 의해 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3)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金剛般若·普門品發願合部』
공민왕 20年(1371), 절첩본, 백지금자,
23.1cm×9.1cm,
<洪武四年 辛亥 七月 日誌/施主比丘尼 妙智/同願比丘尼 妙殊>

97) 『高麗史』百官志 <興威衛, 保勝七領, 精勇五領, 衛, 置上將軍一人, 正三品, 大將軍一人, 從三品, 每領置將軍各一人, 正四>

발원에 관한 내용은 없고 제작된 년대와 시주 자가 비구니 묘지이며, 같이 발원한자 역시 비구니 묘수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妙法蓮華經』 제7권 尾書斷簡

공민왕 22년(1373), 단간, 절첩본, 백지금자.

洪武六年 十一月 日 敬書/一念興慈群生獲利/佛不妄語世所共知我/亡耦/仁德恭明/慈睿宣安/敬順昌禧/嚴正統和/神慧嘉寧/貞淑寬柔/章憲元誠/淵靜含弘/信敏齊莊/承義顯文/厚載簡能/克 配善孝/內襄密寬/濟難重

王太后徽懿魯國大長公主/以功以德/如生如存/故厥追修/靡有遺憾/得此妙經/以金書之/每於 忌旦/披讀此部/於塵墨却/作法供養耳

이 사경의 발원문은 「朝鮮古蹟圖譜」 7권에 실려 있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을 통해 발원문의 판독이 가능했으므로 여기에 소개코자 한다. 이 사경은 洪武 6년(1373) 공민왕 22년 11월에 사성된 것이다. 洪武의 武는 缺劃되어 彡로 찍어져 있다.

〈佛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5계를 세상이 흔히 나에게 가르쳐 준 바이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는 노국대장공주 諡號를 쓰고 있다. 시호에 이어 본격적인 발원문이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왕태후 노국대장공주가 공으로 써 덕으로써 생존을 같이 했던 고로 그 추억을 다스려 없애려 해도 아직도 유감이 남아, 금니로써 쓴 이 『묘법연화경』을 얻어, 매 기일 아침

이 『묘법연화경』 1부를 펴서 읽고, 먹을 갈아 불법을 만들어 공양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민왕이 죽은 처 노국대장공주에게로 향하는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이 발원문은 애후를 잃은 공민왕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몇자되지는 않지만 공민왕의 육필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25) 국립중앙박물관(전영암군도감사)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공민왕 22년(1374), 절첩본, 갈색지은자, 31.4cm×11.7cm.

〈幸會修善/方得人身/枉被惑雲/溺煩惱海/到頭空手/後悔難□不有真空/寧離死苦/雜華爲教/万德本源/首屑精金/寫周譯訖/金剛勝種/已根於斯/次瞻本經/以銀爲字/果在蓮座/白業更明/舉手傳頭/已成佛道/矧及傾索/作此殊因/廣泊見聞/并暫隨喜/各從窮子/至得家珍(珍)/當受髻珠/咸蒙勝記/凡餘火宅/一雨勻霑/乘大牛車/同臻寶所/上報恩四/下資有三/兵燹穀登/法輪常轉/洪武癸丑四月念有四日 敬誌/奉常大夫知沃州事 許士清/同願 安東郡夫人 權氏/隨喜施主優婆夷 權氏

이 사경은 洪武 6년 癸丑(1373)인 공민왕 22년에 奉常大夫 知沃州事 許士清에 의해 발원 되었고, 같은 願을 가진 安東郡夫人 권씨와 隨喜施主者인 優婆夷 權氏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다. 안동군부인 권씨는 허칠정의 부인으로 생각되며, 시주자로 기록된 在家比丘尼인 우바이 권씨는 허칠정의 처족인 듯하다.

발원문의 내용은 〈더욱 선을 닦는 행운으로 바야흐로 인간의 몸을 얻었으나, 비뚤어진 의혹

의 구름이 덮여 오고, 번뇌의 바다에 빠지니, 맨 먼저 빈손에 도달하느니, (글씨박락으로 해석생략) 진정한 곳은 있지 아니하니, 오히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雜華가 만덕의 본원임을 가르치게 되었느니라. 맨 먼저 금을 정교하게 가루로 만들어, 두루 번역된 것까지 사경하였고, 금강경의 뛰어난 종류도 이미 그것을 근본으로 하였으며, 다음에 본경(묘법연화경)을 은으로 사경하니, 그 佛果로 연화좌에 앉아, 선업을 오히려 밝히니, 손을 들어 머리 위로 올리면, 이미 불도는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물며 思索에 기울어짐이 있어, 이런 특수한 인연으로 (사경을) 제작하니, 넓은 견문에 이르게 되었고, 더불어 잠시 隨喜하니, 각기 窮子⁹⁸⁾를 따라 家寶를 얻기에 이르게 되어, 마땅히 髻珠⁹⁹⁾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두루 뛰어난 기록들을 얻으니, 무릇 화택¹⁰⁰⁾의 여유나, 한번의 비가 내려도 꼭 같이 젖는 것이나,¹⁰¹⁾ 대우차(大牛車)를 타는 것이¹⁰²⁾ 꼭 같이 寶所에 오르는 것이다. 위로는 四生¹⁰³⁾에 보은토록 하고, 아래로는 삼도에 있

는 중생들을 도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곡이 풍등하고, 법륜이 상전하기를) 빌고 있어, 개인 발원 사경으로서서는 발원문의 내용이 상당히 종교적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의 奉常大夫 살펴보면 『高麗史』百官志 문산계에 의하면 공민왕 11년 관제의 개정 때, 정4품이었다. 공민왕 18년 관제의 개정 때는 정4품의 상은 中散大夫라 칭하고, 下는 中議大夫라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공민왕 22년에 제작된 이 사경 발원문의 奉尙大夫라는 位階가 『高麗史』百官志의 문산계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경이야말로 당대에 기록인 만큼 이 기록에 나타난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知沃州事』에 관해 살펴보면 『高麗史』地理志 管城縣條에 관성현은 인종 21년에 현령을 두었으나, 명종 12년 현령 洪彦을 잡아서 유쾌시킨 사건으로 관호가 삭제되었다가 그 후 충선왕 5년에 知沃州事로 승격되게 되었다고 하니 발원문의 내용과 같다.

98)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2권 『신해품(信解品)』 중 「아비를 떠난 자식이 50년이 지난 후, 거지가 되어 돌아 왔을 때 부자가 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놀라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는 窮자와 富裕한 長老의 내용 중 궁자를 뜻함.

99)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5권 『안락행품(安樂行品)』 중에 「강대한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공이 있는 병사에게는 코끼리나 말, 전차나 의복, 珍寶나 奴婢 등을 주지만, 왕의 육계 중에 있는 명주(明珠)는 용이하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결국 최고무훈의 勇者에게는 명주를 주었다」라는 발중명주(髮中明珠)를 일컬음.

100)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2권 『비유품(譬喩品)』 중에 「장자의 집이 맹렬한 불길에 싸여 타고 있어도 아이들은 놀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므로 아이들이 불에 타 죽게 될 것을 걱정한 장자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양차(羊車)·록차(鹿車)·우차(牛車) 등을 만들고 탈것이 밖에 있으니 빨리 나와 가지도록 하라고 유인하여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내용의 화택 속에서 나오지 않고 노는 아이들의 여유를 일컬음.

101)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3권 『약초유품(藥草喩品)』의 「삼라만상에는 초목도 많고, 숲 속에는 약초도 많지만, 그 이름과 모양이 모두 다르나, 먹구름이 삼라만상을 덮고 일시에 비를 뿌리면 모든 식물들은 그 크기에 따라 비를 맞나니,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저 큰 구름이 삼라만상을 두루 덮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뜻함.

102)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2권 『비유품(譬喩品)』 중에 화택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장자가 만든 대우차를 뜻함.

103) 胎生 卵生 濕生 化生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생을 뜻함.

26) 호림박물관 소장 『妙法蓮華經』7권본
1부

우왕 3년(1377), 절첩본, 백지묵서, 31.7
cm×10.9cm.

特爲/先妃鐵城郡夫人李氏/靈魂超生/極樂世界/面奉彌陀/親受記別/證一切智/又願父重大匡晉城郡河氏/寶體延壽/寶安當生/淨土請佛/護主法德蘭/敬寫妙法蓮華經一部/流通永祀/作法供養福資/恩有子/宣光七年丁巳十一月 日/供養主/前斷俗大禪師 元珪

『宣光』이라는 년호는 北元의 년호로 元이 북으로 밀려 간 후, 사용한 년호이다. 宣光 七年 丁巳(1377)는 禡王 3년에 해당한다.

발원문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 鐵城郡夫人 李氏의 영혼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여래를 만나서, 친히 기록한 符節을 받아, 일체의 지혜를 증명하기를 빌며, 또 원컨대 생존해 있는 아버지 重大匡 晉城郡 河氏의 보체에 壽를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는 보체가 안전하게 하고, 정토에서는 여래를 청해, 주된 불법의 덕과 향기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묘법연화경』 1부를 사경하여, 영원히 기념하며 유통시킨다. 법공양에 복과 재물을 만든 은혜는 아들에게 있다>고 쓴 후, 宣光 7년 丁巳年 11월 일 공양주 前斷俗寺의 大禪師 元珪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발원문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사』 열전 鄭習仁條를 살펴보면 <河允源은 진주 사람으로 아버지 楫은 찬성사를 致仕하고, 晉川君에 봉

해진 뒤 죽었다. 아들인 승려 원규가 화장하였고, 그의 시호는 元正>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고려사』 열전의 河允源條에 의하면 河允源은 충혜왕 말에 급제하여, 典校校勘에 임명되고, 공민왕대에는 典理愬郎으로서 여러 장군 따라 2등 공신에 책봉 되었다. 능히 수도의 성을 복구하였고, 일찍이 경상도,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4도를 살피기 위해 출정 했다. 길쌈으로 이름이 있는 원주와 상주를 牧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 신돈이 일을 시키려하매, 河允源이 겁매이지 아니하였고, 우왕 초에 발탁하여 大司憲의 벼슬을 내리지면서 晉山君에 봉해졌으며, 잘못 판단하여 (자신이) 아는 것을 쓰지 아니 하였다고 기록¹⁰⁴⁾하고 있다.

이러한 『高麗史』 기록으로 볼 때, 전 단속사의 대선사였던 元珪가 죽은 어머니가 극락세계에서 아미타여래를 만날 수 있도록 빌고, 생존해 있는 아버지 하운원의 현세의 수를 연장하고, 보체의 안전과 정토에서 佛을 만날 수 있도록 빌어 제작된 사경임을 알 수 있다.

아들 원규에 의해 화장된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왕 3년인 이 시기에는 일반인의 화장이 그리 흔한 예는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妙法蓮華經』제7권

禡王 12년(1386), 절첩본, 감지은자,
33.5cm×11.5cm.

洪正十九年庚寅五月 日/群等泥銀書此法

104) <河允源, 晉州人, 父楫贊成事致仕封晉川郡 卒, 子, 僧元珪火葬, 諡元正, 允源忠惠末, 登第, 補典校校勘, 恭愍朝, 以典理愬郎從諸將, 克復京城, 策功爲二等, 嘗出按 慶尙, 西海, 揚廣, 交州四道, 牧原·尙二州, 所至有聲績, 辛旽用事 允源불함부, 辛禡初, 擢拜大司憲, 奉晉山君, 書知非誤判>

華經一部/端爲/奉祝聖壽萬歲/君妃齋年/儲宮鞏固/文武寧/風調雨順/國泰民安/禾穀豐稔/千戈戢息/次祈我等/與同願檀那/今世同增福壽/後生皆證菩提/祖考諸靈/超生淨界/一切有情/俱永妙利云/施主 竹山郡夫人金氏/同願貞淑宅主宋氏/同願前奉翊大夫禮儀判書申允恭/化主 覺普/石室雲栢覺(貌)書

이 사경은 洪武 19년인 우왕 14년(1386)에 제작된 작품으로 대시주자는 竹山郡夫人 金氏와 貞淑宅主 宋氏와 前奉翊大夫 禮曹判書였던 申允恭임을 알 수 있다.

충혜왕 이후 주로 궁주의 여직을 옹주나 태주로 봉했다(105)는 『고려사』 기록으로 정숙태주는 왕실의 서녀임을 알 수 있다. 죽산군부인 김씨가 정숙태주보다 시주자로서 앞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왕실과 가까웠던 인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의 부인으로 보인다.

奉翊大夫는 『高麗史』 百官志 문산계에 의하면 공민왕 11년 이후 종3품이었으며 예조에는 판서가 1명으로 역시 종3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申允恭의 관직은 자신이 기록한 것과 『高麗史』의 기록이 맞아 든다고 할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묘법연화경』 1부를 은자로 사서 하여 진실로 봉축하니, 성수만세와 왕비의 수명이 길이 다하고, 태자궁을 굳건히 하고 문무백료가 다 편안하며, 바람이 조화롭고, 비가 순히 내려, 오곡이 풍성하게 익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다

음으로 우리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같은 원을 가진 시주자들이 금세에서는 다 같이 복과 수를 더하고, 후생에서는 모두 보리를 증명 할 수 있으며, 죽은 조상들의 여러 영혼을 살피, 초월한 정토세계에서 태어나게 하고, 일체의 중생이 영원히 『묘법연화경』의 이로움을 함께하기를 빌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발원문 양식은 제작년 월 일이 맨 앞에 씌어져 있다.

化主 覺普가 발원문을 썼고, 書者는 覺貌로 보이나, 글씨가 지워져 확실히 알 수 없다.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2470 『妙法蓮華經』 제7권

우왕 11년(1385), 절첩본, 백지묵서, 36.2 cm×12.6cm.

<開城郡夫人金氏/特爲/先夫朴仲起/尊靈斷惑/證眞草凡成聖/謹捐淨財/敬成妙典/流通永世/作供養/普令含靈/齊承勝利/不滯化城/直至寶所者/洪武乙丑 三月 日誌/同願敬納 尙愚>

이 사경은 우왕 11년(1385) 제작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묘법연화경』 제7권이다.(106) 발원문은 <開城郡夫人 金氏가 특히 세상을 떠난 남편 朴仲起의 존경하는 영혼이 미혹함을 끊고, 진실로 초개와 같은 인간이 모두 聖인이 되는 진리를 증명하도록, 삼가 깨끗한 재물을 회사하여, 정중하게 『妙法蓮華經』을 완성하여, 영원히 세상에 유통시켜 공양하니, 넓게

105) 『高麗史』 百官志 제31권, 內職.

106) 이 제7권 사경은 이외에도 표지화나 사경변상화의 양식이 같은 제2권·제3권·제4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4권의 사경은 표지화와 변상화의 양식이 한 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거의 같기도 하지만, 구 덕수궁 유물목록대장의 번호에서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제2권의 덕 2467, 제3권의 덕2468, 제5권의 덕2469, 그리고 제7권에 2470이라고 붙여진 번호로서 이들 『묘법연화경』들이 7권본 1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생에게普舍하노니, 勝利를 이어 받아 구제 되고, 化城에 지체함이 없이, 바로 寶所에 이르도록> 빌고 있다.

발원자는 박중기의 부인 개성군부인 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이르면 큰 벼슬을 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시주 할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사경을 발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발원문을 쓴 인물은 같은 원을 가지고 사경제작에 관여 했던 비구 상우(尙愚)였음을 알 수 있다.

2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前麻谷寺) 『妙法蓮華經』 제6권

우왕 14년(1388), 절첩본, 감지은자.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 日 寫成/施主奉翊大夫典工判書致仕盧 有麟>이라고 적혀 있다.

洪武 21년인 우왕 14년(1388)에 사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奉翊大夫이며, 工曹判書を 퇴직한 盧有麟의 시주에 의해 사성된 작품이다.

충렬왕 24년에 충선왕에 의해 관제 개정 될 때, 工曹라 칭하면서 판서라 하지 않고 尙書라 하였고, 그 후 공민왕 5년에 다시 工部라 하면서 여전히 상서였고, 11년에 典工司로 고치면서 상서를 판서라 하였다. 공민왕 18년에 다시 공부라 칭하였고, 판서를 고쳐 典書라 하였고, 공민왕 21년에 典工司로 고치면서 판서를 두었다고 한다.¹⁰⁷⁾ 발원문에서 노유린은 스스로 자신을 典工 判書라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공민왕 21년(1372) 이후 퇴직한 사람이라고 보아

야 하겠다.

奉翊大夫의 散階는 종3품 下이다. 工曹에는 判書가 1인으로 가장 높은 벼슬이었므로 사경의 시주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공조의 판서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경의 시주자가 아니라 발원자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30)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공양왕 1년(1389), 절첩본, 백지금자, 34.7cm×11.4cm,

右華嚴法華諸佛本/宗萬法根○然其是法/以智立體/以行成德/過去如來/皆修普賢廣大行願/成就/普度群生/未來學者/當修是行/頓超三界/得無生忍/釋(禧順高山)敬恭華嚴普賢行願/結同萬人/皆證深入/解脫境界/特成大寶蓮經七軸/及造彌勒上下生經/以廣流通/判書姜遇春/及與四等/有緣檀那信/而其事共助/以財者甚衆/具錄于后/嗚呼一乘大願/在於經乎/在於心乎/行人無忽/伏祈/聖壽萬歲/君壽千秋/都民咸樂/洪武二十二年丙午三月 日 高山拜題>

이 사경은 洪武 22년(1389) 공양왕 원년에 高山이라는 승려에 의해 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시 발원문의 양식이 종전 것과는 틀린다.

백지금자의 이 사경은 앞표지는 없고, 「鬪賓國三藏般若譯經」이라는 기록만 있어, 삼장본야의 역본인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7) 『高麗史』 白官志 제30권.

발원문은 <오른편의 화엄경·법화경등 여러 佛書는 萬法根本의 으뜸이 된다. 그러나 이 법문은 지혜로써 體를 세우고, 실행으로써 덕을 이루고, 과거 여래가 모두 보현의 광대한 행원을 닦아 만덕을 성취하니, 넓게 모든 중생을 제도했듯이, 미래를 배우려는 자도 마땅히 이 행원을 닦아, 깨달음으로 삼계¹⁰⁸)를 초월하고, 無生法忍¹⁰⁹)을 얻으니, 승려 禪順高山은 화엄보현행원을 공경해서, 만인과 같이 결사하여, 해탈경계에 모두가 깊이 들어감을 증명하하니, 특히 大寶 『묘법연화경』 7축 및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을 제작하여, 넓게 유통시키니, 判書 姜遇春 및 4명과 시주에 믿음이 있는 인연자와 그 일에 공조하여 재물을 낸 자가 심히 많았음을 후에 갖추어 기록 하였다. 아아 일승대원이 경전에 있음이요, 마음에 있음이니, 사람이 행하는 바에는 소홀함이 없었도다. 옳되 기도하니, 聖壽萬歲하고 임금의 수가 천추에 이르고, 개성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두루 미치기를 빌고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해 姜遇春과 더불어 4명의 施財者에 의해 이 사경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발원문을 쓴 사람은 승려는 高山이다. 그는 특히 화엄보현행원품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화엄경과 법화경을 특히 중요시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法華經』은 7축이라고 기록으로 권자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려 高山은 『華嚴經』의 普賢行願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인물로 보인다.

31) 廣興寺 소장 국립경주박물관 기탁품 『묘법연화경』 제3권

공양왕 즉위년(1389), 절첩본, 백지묵서, 35.1cm×12.5cm.

<優婆夷張氏妙愚/謹發誠心/書寫此經/用薦先三父母/及一切有情/同人一乘者/洪武二二年 己巳九月 日誌>

안동 廣興寺 소장으로 경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묘법연화경』 제3권은 발원문에 의해 洪武 22년인 공양왕 즉위년(1389)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優婆夷 張氏 妙愚가 삼가 성심을 다해 발원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경을 書寫하여, 세상을 떠난 3인의 부모를 천거하는데 쓰려하며, 뿐만 아니라 일체의 중생들이 다 같이 일승자가 되기를 빌어, 洪武 22년 己巳 9월에 이 발원문을 쓴다>고 기록하고 있어, 在家의 女僧 장씨가 별세한 삼인의 부모를 위해 발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원자가 우바이 장씨의 법명이 妙愚라고 것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이르면 여성이 단독으로 사경의 발원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원문을 통해 읽을 수 있다.

32) 來蘇寺 소장 전주박물관 기탁품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조선 태종 15년(1415), 절첩본, 백지묵서, 35.9cm×13.9cm.

<斯典如輪王髻珠/尊勝無比/書持讀誦/利洽幽冥/今李氏丁良人/柳謹之喪/哀不自勝/敬寫靈文/以薦冥福/追遠之誠/豈淺淺

108) 육계, 색계, 무색계.

109) 불멸하는 진여의 범성을 인지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

哉/柳氏之情升/審可必也/時 永樂乙未秋七月 日 跋)

발원문에는 永樂 乙未로 적혀 있어, 영락 13년인 조선 태종 15년(1415) 7월에 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의 양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기록하다는 뜻으로誌자로 쓰던 것이 跋文이라는 뜻으로 跋자를 쓰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이 경전은 轉輪王의 계주와도 같아,¹¹⁰⁾ 위대함과 빼어남이 비할 데 없으니, 寫書하고, 지니고, 읽고, 외우면¹¹¹⁾ 그 이익됨이 저승에서도 충만하게 되니, 지금 李氏 丁良人이 柳謹의 喪을 당해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 신령스러운 문장을 정중하게 사서하여, 천거함으로써 명복을 비니, 追遠¹¹²⁾의 정성이 어찌 성글고 앎을 수 있으리오, 유씨의 한되의 정이 가히 필요함을 살펴주기를 빌 뿐>이라고 쓰고 있어, 죽은 유근의 아내 이씨 정량인이 남편의 천도를 위해 이 사경을 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녀자가 발원자 및 시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作例라 할 수 있다.

3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마곡사본) 『妙法蓮華經』제7권

조선 세종 4년(1422), 절첩본, 감지은자, 42.1cm×14.3cm.

<夫此輕/包盡萬法實相/大乘之肝心也/比丘德明有志/於法供養/清寫於余七点/下母憂樂爲之於書/嗚呼右師之心/蓋與隨喜

檀那/同歸樂域矣/永樂壬寅冬月尙嚴識/永老/元壤/朴貴德/金天 兩主/鄭仁遇 兩主/李安大 兩主/姜个只兩主/鄭豆彥 兩主/高成吉 兩主/菊花/李 崇智 兩主/前縣監李 崇禮 兩主/鷄林郡夫人李 氏/開城郡夫人高氏/鄭氏 兩主/前司正洪氏 兩主/前殿直李 氏 兩主/前護軍李 氏兩主/施主>

이 사경은 永樂 壬寅年이라는 기록으로 영락 20년인 세종 4년(1422)에 제작된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원자는 비구 德明이고, 발원문은 尙嚴이 썼으며, 많은 시주자들에 의해 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무릇 이 경전은 만법의 실상을 모두 포함하니 대승의 肝心이나라. 비구 덕명이 뜻이 있어, 불법으로써 공양코자 하여, 무려 7점을 사람을 청하여 사서하니, 아래로는 어머니의 근심과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을 사경하게 되었다. 아하 덕명의 마음이 어찌 수회하여 시주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어, 『묘법연화경』 7권본을 1부를 비구 덕명이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시주를 받아 사경승을 청해 이 7권본을 사성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청하다는 의미의 倩자가 淸자로 바뀌고 있어, 시대의 변천을 느끼게 한다.

시주자들 중에 박귀덕, 김천, 정인우, 이안대, 정두언, 고성길, 이송지 등은 그들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 兩主라고만 썼을 뿐,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씨양주의 경우도

110)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5권 「안락행품(安樂行品)」중에 「강대한 전륜성왕(轉輪聖王)의 계중보주에 대한 비유.

111) 『묘법연화경』 7권본 중 제6권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내용 중에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사경한 이 공덕에 관한 내용.

112) 원래 뜻은 죽은 부모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追遠이라하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존중해서 사용한 듯함.

분명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관직을 기록한 경우, 前縣監 李崇禮는 그래도 자신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만, 前司正 洪氏, 前護軍 李氏兩主라고 쓴 경우는 이름조차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세종 4년에 척보정책에 눈치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장식경의 경우, 몇 명의 시주자에 의해서 발원되었으며, 자신의 신분과 관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친원계의 인물인 경우에는 원으로부터 받은 관직을 자랑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이 사경발원문에서는 시주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마곡사본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제1권의 권말에는 발원문은 없고 시주자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어¹¹³⁾ 각 권마다 施財者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곡사본 『묘법연화경』 제1권 및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제2·4·5·6권과 이 『묘법연화경』 제7권이 1질이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밝혀진 바 있다.¹¹⁴⁾

4.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사경 및 조선

초의 사경발원문은 그 시대를 산 인물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과 사경의 공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들였는가를 읽을 수 있는 생생한 자기 증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년호의 사용과 발원문의 양식을 통해 시대적 변천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고, 각 발원자 혹은 施財者들이 밝히고 있는 관직을 통해 고려관제사의 또 다른 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려의 전기고려 개인발원사경의 경우가 聖壽天長으로 시작 되는데 비해, 충렬왕 이후 고려 후기 개인발원의 사경의 경우, 대개 친원계 인사들에 의해 寫成된 사경인 만큼 〈皇帝萬年〉으로 시작됨은 물론, 〈皇帝萬年〉을 평출시키고 있다는 양식적 특징도 주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민왕 이후, 황제만년은 사라지고 다시 〈聖壽天長〉이 나타나거나 아예 개인적인 願을 비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발원문양식에서 누구나가 쉽게 고려사회의 변천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고려 후기 개인발원 사경발원문에서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 사경을 발원하였다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고려 후기 사대부의 진출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불교의 四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四恩¹¹⁵⁾의 첫 번째가 부모라는 점에서 부모를 위한 사경이 많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113) 永嘉郡夫人 權氏, 表仁桂, 學連, 狹場郡夫人 李氏, 元言兩主, 清訥, 密陽郡夫人 朴氏, 崔莊, 信祥, 金氏, 韓氏, 金元兩主, 信芬, 姜淑愼兩主 兩主, 都致兩主, 金孟, 吾金, 孟陞生兩主, 羅大兩主, 毛知里, 全信兩主 柳楊兩主 隱里兩主 柳楊兩主 隱里兩主 毛知里兩主 金之大兩主 金哲兩主 仇德兩主 士隱未兩主 金甫龍兩主 盧陳兩主 盧布兩主 趙思文兩主

114) 문명대·박도화, 「광덕사 묘법연화경 사경변상화의 연구」 『불교미술연구』1,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단연구소, 1995년, p.11-12.

115) 부모, 국왕, 중생, 삼보, 혹은 부모, 스승, 국왕, 시주.